

청년농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다





청년의 힘,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쌀, 귀리, 콩 등 익어가는 곡식들부터 고추, 감자, 고구마, 옥수수까지...
초가을, 너른 들판 가득 농산물이 웃음짓게 합니다.

사과, 배, 감, 유자, 석류 등 알록달록 과일부터 온실속 열대과일까지...
동그런 산 아래 과수원에서 주렁주렁 과일들이 미소짓게 합니다.

딸기, 토마토, 망고 등에서부터 호박, 오이, 가지 등 시설채소까지...
긴 터널처럼 보이는 스마트온실에서도 채소들이 반겨줍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농산물이 우리 곁에 새로운 상품으로 다가옵니다.
전남지역 청년농부들은 전남 농산물로 신산업, 고부가산업으로
만들어가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활짝 웃는 청년농부의 웃음에서
농촌의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듯합니다.

CONTENTS

SECTION 1.

꿈&농업

06 기획특집

- 체계적인 청년농부 육성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
- 전남농업의 미래,
청년농부를 키우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
- 청년을 위한 꿈의 터전을 다지다!
청년농부 2,000명 육성 프로젝트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14 팜테크

안전한 농산물, 우수한 농산품으로
품질 경쟁력을 높인다!

16 글로벌농업

연대와 지원으로 청년농부 양성하는
글로벌 농촌

20 청년농부 트렌드

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청년농부

SECTION 2.

미래&농업인

24 전남명인

진도, 복령조화고 김영숙 명인

26 팜&마케팅

지오쿱협동조합
윤영진, 김영순, 김지훈, 장민주,
차주훈 대표

30 청년이 온다

나주 철야마루영농조합
서재정 대표

34 남도 여기!

평온함 가득한 남쪽 끝 마을
장흥 1박 2일

SECTION 3.

농업&전남농기원

40 농기원 기고

조동호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강소농민간전문가

42 귀농정보

영광군·장흥군 귀농귀촌 정책

44 농업인 건강정보

수확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이 우선!

46 농기술정보 1

기나긴 장마 후 과일 품질을 높이는
과수원 관리 노하우

48 농기술정보 2

초가를 무르익기 전,
더 조심해야 할 과수 병해충

50 교육프로그램

11월 교육프로그램 안내

52 JARES NEWS

58 남도축제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

발행처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발행일 2020년 9월
발행인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 박홍재
편집인 기술지원국장 정찬수
편집책임 자원경영과장 서종분
편집기획 김덕현 배현우 이수영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전화 061-330-2597
팩스 061-335-4199
홈페이지 www.jares.go.kr
발간등록번호 78-6460000-000450-07
진행·제작 명진씨앤피(02-2164-3000)

전남지역 청년농부들이 직접 생산·가공한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해 지오쿱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지오쿱 소속 청년농부들은 쌀, 잡곡, 과수, 채소, 버섯,
특용작물을 등의 상품을 홈페이지(www.ziocoop.com)
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청년농부들이 정직하고
우수하게 만든 농산품을 많이 애용해주세요.

SECTION

1



꿈&농업

우리 농업의 미래는 청년농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청년농부들이 전남지역 농산물을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판매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영농정착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힘이 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지속가능한 농업의 시작이자 농촌의 미래, 청년농부의 힘을 믿어봅니다.

06 기획특집

체계적인 청년농부 육성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

전남농업의 미래, 청년농부를 키우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

청년을 위한 꿈의 터전을 다지다! 청년농부 2,000명 육성 프로젝트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14 팜테크

안전한 농산물, 우수한 농산품으로 품질 경쟁력을 높이다!

16 글로벌농업

연대와 지원으로 청년농부 양성하는 글로벌 농촌

20 청년농부 트렌드

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청년농부

체계적인 청년농부 육성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다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농가 수는 100만 7,000호.
2018년보다 1만 4,000호가 감소하였고, 2020년 말에는 100만 호가
채 안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 감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예상되었고
더 큰 문제는 농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젊은 후계세대가 단절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년농부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점점 더 단계화 및 구체화되고 있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농가 경영주의 연령분포가 60대 이상
의 고령층이 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
생산에서도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지면적 3ha
이상 농가는 7만 7,000호인데 그 중 65%가 60세 이상 경영주
다. 반면, 후계세대라 할 수 있는 20~30대 경영주는 2010년
2만 1,000호에서 7,000호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전국의 행정
리 수를 감안하면 5개 마을에 한 명도 되지 않는 셈이다. 40대
경영주 4만 5,000호까지 포함하더라도 젊은 농가의 비중
은 5% 남짓에 불과하다.

농업후계자 문제는 1980년대부터 제기되었고, 그동안 청년들
의 농촌유입을 위해 영농교육, 자금 지원, 농지 임대와 매매 알
선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동
안 해마다 시행되었던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 창업농부가 정
착이 실패한 이유로 영농자금 부족, 농지와 주택 확보, 영농기
술 습득, 기본생활비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청년농부들이 정
착에 실패하는 데는 영농 초기의 소득 불안정이 가장 큰 장
애요소로 나타나, 청년창업농들에게 최대 월 100만 원, 3년까
지 정착금을 지급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 1년에 1,600명을 선발해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18년
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3년 째를 맞이하고 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활성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소득지원 외에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 알선 등을 연계하는 통합적 지
원을 지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총 453억 원(국비 314억
원)이 배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 지원으로 영농자금
과 소득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현장에 필요한 영농 노
하우 습득과 농지 확보는 자금지원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영농 기
술을 교육받는 일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현장 농업
경영과 생활을 해 나가는 데는 거리감이 있다.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와 접근성이 없으면 농사를 짓기도, 정
착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농지를 빌리는 것
은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쌓지 않으면 매우 힘든 실정이다. 이
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청년교육농장이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교육농장을 사회적농업
으로 지정하고 시설비와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내식 명예선임위원에 따르면, 일반 농
업법인 신규취업자에 대해서도 창업농업에 준하는 지원이 필
요하다고 밝혔다. 농업법인 취업은 그 자체로 농업인력의 확

보이지만 창농을 위한 효율적인 준비단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청년취농업인 지원사업’으로 확대하여 창농자 외에 농업법인 등への 취업자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농업조직 및 단체는 농지와 지역자원의 정보화,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를 통해 정부의 자금 지원 정책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농부 3단계 정착

유입

- * 한국농수산대학교 입학정원 증원
2016년 390명 → 2020년 570명
- * 농·공대 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 비농업분야 청년유입 확대
- * 청년귀농인 장기교육과정 개설
- * 농업법인 취업지원

정착

-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소득향상을 고려하여 연차별 차등지원
1년차 100만 원 → 2년차 90만 원 → 3년차 80만 원
- * 청년창업농 자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개선
우대보증비율 90 → 95% 상향
보증한도 증액 2억 → 3억
- * 농지은행 지원확대
22년까지 3,800ha 이상 확대
- * 경영실습농장 임대
2018 30개소 + 2019 30개소 총 60개소

성장

- * 법인(팀) 창업 및 투자활성화 지원
모태펀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 투자 활성화
- * R&D지원 등 기술 고도화
농식품 벤처창업 바꾸쳐(연간 5천~1억 5천만 원) 등 우대
- * 경영진단 및 컨설팅

여성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활성화

현재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에 대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농업 주 종사자, 농업CEO, 지역사회 리더, 농업관련 사업 경영자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채소·축산·과수의 성장, 소득 중심 작목 전환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증대 등의 농업생산구조 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기획·회계·정밀한 농작업 역량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관련 농업분야에서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로서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마

을기업 활성화, 고령농·귀농·다문화가정 증가,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는 농촌사회에서 도농교류, 마을개발 활동, 돌봄 및 후원자, 멘토 등의 지역사회 활동에 여성농업인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마을리더로서 역할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의 생태서비스 기능, 전통식품·향토음식의 상품화, 농산물 가공산업의 성장으로 농업의 외연이 확대됨에 따라 6차산업, 도농교류, 직거래 등의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농외소득활동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농업인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농업인력으로서, 새로운 소비 변화에 부응하는 농업관련사업의 경영자로서, 농촌사회 활력을 증진시키는 지역사회 활동 참여자 및 지역리더로서, 그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역할을 통해 미래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육성법(2001년 12월 제정)에 근거하여 5년 단위의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법을 기반으로 지난 2019년에는 여성청년후계 양성을 위해 청년 여성농업인 279명을 선발해 정착금을 지원하는 한편 여성 후계농업경영인 200명을 선발해 농지구입 등 창업기반을 마련토록 지원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증진과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교육을 통해 원활한 농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밖에도 여성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2020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 5개 분야 39개 과제(1,747억 원, 국비 및 지방비 포함)를 시행 중이다. 



전남농업의 미래, 청년농부를 키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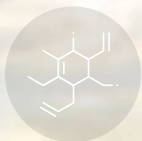
요즘 청년농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전과 달리 비즈니스 하는 농부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한창 은퇴와 함께 부푼 꿈을 안고 귀농을 한 사람들이 붐을 일으켰는가 하면 최근에는 아이디어 하나로 농촌에서 창업을 하거나 후계농업 청년농부들이 사업모델을 실현시키며 성공가도를 걷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또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글·사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

전남지역 청년농부 활동 현황

전남지역 청년농업인은 2019년 기준 9,480명이며, 전체농업인 인구의 2.9%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줄어든 농업인구와 고령화로 전남 22개 시·군 중 18개가 인구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남지역은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확산으로 약화된 농업 성장 잠재력을 극복하고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청년농업인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농산업 고부가가치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농 현장실습을 위한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지원하는 등 고부가가치 우수 아이디어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청소년 성장단계에서부터 농심을 배양시켜 농업 전·후방 산업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 아울러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이끈 4-H 이념을 바탕으로 청소년 성장단계별 표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H회(120개회 5,567명) 활성화를 위해 올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원과의 주요 성과

농기술 신속 확산을 위한 농촌지도기반 구축

농촌지도기반 구축을 통해 미생물 배양시설, 농약안전성분석실,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개·보수 등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시설 17개소와 장비 20종 71대 지원으로 전문농업기술 지도체제 확립과 신속한 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 상담소 구축을 통해 고령농, 여성농업인,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도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촌지도기반 구축(농민상담소 신축)

전라남도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해 일정기간 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3년간 19개소(스마트 온실 4, 일반온실 15)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팜 경영실습온실은 온실 내 온·습도, 빛, CO₂ 수준 등 환경을 제어하고 일사량, 강우 등 외부 환경정보 모니터링과 영양분 공급, 난방기 가동, 측창개폐 등 자동원격 환경관리 시설을 갖추고 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무안)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위해 협업경영으로 경쟁력 향상과 집단지도를 통한 효율성 제고, 지역 인적자원의 연구회 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발전 혁신 조직 육성,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술 확산 등 생산중심의 학습조직부터 품목별 생산·유통 강화를 위해 육성하고 있다.

[구성현황: 453개회 1만 6,596명(도 11개회 / 623명, 시군 442명 / 1만 5,973명)]



도단위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농업경영 전문역량을 갖춘 강소농 육성

가족농 중심 소농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경영개선 등 역량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도농가 모델을 발굴해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 경영상태를 분석하고 농업현장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강소농 민간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지식을 가진 분야별 8명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농가가 희망할 경우 직접 찾아가 자문,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소농 민간전문가 현장지원단 운영

지역농업 정예인력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농촌지도사업 촉진을 위한 농업인 단체로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를 육성하여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있다.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가 22시군 255개회 1만 3,186명, 생활개선회는 22시군 256개회 8,158명, 4-H회는 21시군 114개회 5,397명으로 구성되어 선도적인 농업인으로 농촌지역사회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전라남도 청년4-H 과제경진 시상식

농촌진흥사업 우수사례 성과확산

지역특화작목 우수 농산물 발굴, 청년창업농 성공사례, 농산물가공사업장 등 6차산업 성공사례에 대해 시기별로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사업 성과확산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현장영농 애로기술 해결 홍보를 위해 도청 인터넷방송 및 공중파방송을 활용 지역특화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기술보급 시범사업 우수성과 브리핑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다.



지역특화작목 우수사례 성과확산

해부터 회원 배가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농촌의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촌의 문제와 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전담코칭과 타 산업과의 협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래세대 육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발굴해 농심을 배양하고 농촌 공동체를 지켜나갈 청년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청년 후계농업인에 대한 육성

최근 가업을 승계하려는 청년 후계농업인과 귀농·귀촌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 수용력이 높은 청년 세대 유입으로 농업혁신이 필



요한 시점이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단계별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진입단계 청년을 위한 현장실습과 경영실습임대농장 6개소를 조성하고, 정착을 위해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성공모델 20개소,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10개소를 추진한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돈 버는 젊은 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농 53명이 유통 조직체 ‘지오쿱(ZIOCOOP)’이라는 유통조합을 설립하여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판촉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농가소득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농업인 23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현지 조사를 거쳐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5명을 선정하여 대상 수상자 5,000만 원, 최우수상 4,000만 원, 우수상 2,000만 원을 각각 지원했으며, 올해도 5명을 선발하여 농촌을 이끌어 갈 미래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돈 버는 젊은 농업인 육성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 등으로 농업·농촌이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전남도 청년(18~39

세) 농업인구가 2015년 1만 3,182명에서 2019년 9,48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도내 농대·농고 졸업생의 농업분야에 취업 기피로 후계 농업인력이 부족하고 농업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과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5개소,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사업 20개소, 영농 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10개소,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사업지원 10개소, 청년 4-H 과제 경진 창업농 육성사업 10개소, 청년 4-H 회원 맞춤형 과제활동 지원 사업 21개소 등 진입, 정착, 성숙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청년층의 농촌 유입과 농촌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청년 창농타운 조성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 및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원 내에 청년 창농타운을 사업비



118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농타운에는 전남농업기술원의 특화된 농업연구 인프라를 연계하기 위해 기술원 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농업의 비즈니스화를 위해 고부가가치·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선도적이고 실무적인 전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자와 기업 및 유관기관이 모여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농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센터,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트렌드에 부합하는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제품지원센터’ 및 단계별 창업교육을 위해 ‘스타트업캠퍼스’로 조성된다.

농산업 창업희망자는 3단계 창업교육(기초, 예비, 역량강화)에 참여하게 되며, 올해 완공되는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여 본격적인 창업활동을 하게된다. 또한 입주기업에 창업교육, 제품개발·제작, 위탁생산, 기술창업, 전담코칭, 협업체계,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여 농산업 중소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는 미래 전라남도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희열 과장 이하 3개팀(기획홍보, 인력육성, 청년창농기술)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지도기반 조성 및 농업기술 확산, 창업 및 후계 청년농부를 육성·지원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농촌지원과에서는 고부가가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여 전남지역 청년농부를 지원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특히 청년농업인들이 진입에서부터 정착·성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농업기술 확산을 위한 홍보, 실습실 지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및 지원 등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의 지속적인 양성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농촌 실현'을 위해 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반드시 성공한 농촌청년 사업가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업무

기획홍보

- 지도 기획 및 평가
- 농업기술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 농촌진흥사업 성과확산
- 농촌진흥사업 국비 보조사업 예산관리

인력육성

-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지원·관리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지원
-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

청년창농기술

- 청년창농기술팀 지원 관리
- 4-H회 조직 및 육성
-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추진



청년을 위한 꿈의 터전을 다지다! 청년농부 2,000명 육성 프로젝트

청년과 농업의 공통점은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한다는 데 있다. 양질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 그에 버금가는 질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2022년까지 ‘청년농부 2,000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영농 정착을 위한 진입부터 성장까지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펼쳐나가고 있다. 프로젝트의 역점 사업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글·사진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영농,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농업 인력의 고령화, 후계 인력 급감은 현세대의 숙원사업과 같다. 농가 수와 농가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과 같이 영농활동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한 가지 긍정적인 상황은 농업·농촌(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증가세에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대응체계의 미흡으로 진입 문턱에서 머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청년농부 2,000명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 농업인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비전은 ‘사람 중심 미래 농업, 활기찬 행복 농촌 구현’에 있다. 세부 전략은 진입·정착·성장 단계별로 나뉘며, 총 20개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2022년까지 2,000명의 청년농부를 육성하고 이 가운데 500명의 6차산업 농업인을 육성할 계획이다.

진입 > 정착 >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

진입단계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농어촌정착 특별반 운영	한국생명과학고, 김천생명과학고 2개교별 3천만 원 자금 지원 특성화고 설립 취지에 맞는 전담 지도교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선도농가 멘토링	예비농업인(농업계고 재학생) 기술전수, 영농 승계 위한 현장 맞춤형 실습, 가정 방문 영농 상담, 농업 정보 전달 등
지역 농업계고 특성화 교육	한국생명고, 김천생명고, 포항해양과학고, 한국산림과학고, 용운고, 한국팻고 등 6개교에 대해 교육과정 과제연구, 품목별 현장 체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농업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농어촌 일손 및 일자리 창출	예비농업인 농작업 체험기회 일환으로 농업동아리 운영비 지원 일손 지원에 소요되는 실비와 단체상해보험비 지원
청년농업창업 지원센터 운영	경영기술 지도 및 마케팅 지원, 세무회계, 법률자문 지원 공동연구, 시제품 제작, 창업관련 정보 수집, 신기술 교육 등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체험으로 농촌이해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교통비 등 경비 지원, 노하우·기술전수비 지원)
경북 농민사관 학교 교육	49개 과정으로 기초, 심화, 리더 과정 등 단계별 교육 지원 [홈페이지] www.aceo.kr
농업 마이스터 대학	12개 과정으로 최신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www.jnmeister.com

정착단계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 실시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 비용	농업계고(한국생명고, 김천생명고, 포항해양고, 한국산림고, 용운고) 졸업생 초기 영농정착을 위한 소규모 창업비용 지원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영농자금, 일반 가계자금 등 생활안정자금 지급
청년농부 육성 지원	후계인력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 생산·가공·유통, 체험·관광 등 창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교육·컨설팅, 상품화개발비, 마케팅 비용, 기자재 구입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농산업 분야 신규 인력 유입 촉진 및 성공적인 영농정착 동기 부여 - 농업법인 신규 취업 청년 인건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인건비: 월 200만 원 × 90%, 정착지원비 30만 원/연) - 각종 직무교육, 네트워크 활동 등 지원

성장단계 자립 기반 구축 지원, 유능한 CEO 육성

창농기반 구축	신규 창농 희망 청년 대상 농축산물 생산, 제조·가공, 농어촌체험·관광 등 지원 - 지원대상: 만 18~39세에 해당하는 자 - 지원규모: 200백만원 이내
자립기반 구축	-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사업내용: 생산·가공·유통 등 자립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설·장비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등
경쟁력 제고 사업	전문기술(가공), 제품개발 등 사업특성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 사업비: 250백만원(국비 45%, 지방비 45%, 자부담 10%) - 지원대상: 만 18~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산업기능요원 신청 불가)
청년농업 CEO 농어촌 진흥금	융자 지원,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차세대 리더 육성 지원대상: 만 18~39세 이하 청년농업인 사업내용: 생산·가공·유통 등 자립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참여형 마을영농	청년이 주도하고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영농사업 지원 - 지원대상: 청년1인 이상, 마을주민 5~10명 이상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청년 주도) - 지원단가: 생산중심형 1억 원/3년간, 유통복합형 3억 원, 6차산업형 3억 원 이내 - 지원내용: 고소득 작물 생산시설, 농기계, 상품화시설, 가공시설 등

연계사업 지원: 지속가능한 영농 위한 차별화 전략



미래 농업의 희망, 청년농부

우리가 매일 먹는 삼시세끼의 주재료는 모두 농업의 결과다.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농업자원의 생산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이어 갈 미래의 인적 자원이 꼭 필요하다. 청년농부를 미래 농업의 희망으로 부르는 이유다. 창농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과 기술과 경험에 따른 노하우의 전수가 필요하다. ‘청년농부 2,000명 육성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탄탄한 지원과 든든한 조언이 뒷받침되어 농업에 뜻을 품은 청년들의 이정표가 되고자 한다. ∞



안전한 농산물, 우수한 농산품으로 품질 경쟁력을 높이다!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GAP'

농산물 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e Practices)인증

의 중점은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농경지, 농업용수) 보전'이다. 따라서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과 수확, 관리 및 유통 단계에서 작물 재배 시 생성된 위해요소(농약, 비료, 미생물, 중금속 등)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우수관리인증 대상은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농산물(축산물 제외)이며,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110개 항목의 관리 기준을 통과한 경우 공인된 인증기관의 우수관리인증을 받을 수 있다. GAP 인증 농산물에는 인증번호,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표기되어 있어 상품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GAP 인증은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농가의 자부심이 되기도 한다. 최근엔 농산물 판매과정에서 GAP 인증 여부를 기본적으로 확인할 만큼 유통의 기본조건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면 GAP와 친환경(유기, 무농약 등) 인증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을 위한 것인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것인지에 따른 구분이다. 재배 방법의 차이도 눈여겨볼 만하다.

[신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GAP(농산물 우수관리인증)와 친환경 인증제도 비교

구 분	GAP	친환경 인증
목 적	안전성 중심, 위생적 관리(사람)	자연환경 보전 중심
농약 사용	표준재배 범위 내 비료, 농약, 제조제 등 사용 가능, 안전 기준 준수 (잔류 허용 기준치 최소화)	유기합성농약 사용 금지 인증 종류에 따라 화학적 방법 배제
유효 기간	2년	1년
표 기	GAP(우수관리 인증)	유기, 무농약, 무항생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생산 과정 전반에 투입하는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우리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경우에 해당한다. 저탄소 농축산물은 사과, 포도, 단감, 배, 복숭아 등 과수 품목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식량작물, 채소, 특용 약용작물 등 구성이 다양하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 취득 자격 요건	
인증대상 품목에 해당	식량·특용·채소·과수 등 51개 품목
저탄소 농업기술로 생산	비료 및 작물 보호제, 농기계 에너지, 난방에너지 절감 기술, 농업용수 관리 기술
농식품 국가인증 사전 취득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GAP 인증 중 최소 1가지 이상 취득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산물 브랜드의 차별화 전략으로 손꼽힌다. 현재 저탄소 인증 제품은 프리미엄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신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www.fact.or.kr]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신청

대 상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작목반, 농업기관, 농협 및 지자체 등 인증요건 검토 후 선정
방 법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스마트그린푸드(www.smartgreenfood.org)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이메일, 우편, 팩스 063-919-1489) [문의] 기후변화대응팀 063-919-1475~6
시 기	연 2회(3~4월, 7~8월)

출처 : 정부24(www.gov.kr)

요즘 청년농부들은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고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산물의 가공·유통에 필요한 농식품 국가인증제도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장려하고, 우수한 품질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현재 통용되는 농식품 국가인증제도는 모두 14종. 이 가운데 청년농부의 농업역량을 강화하고, 농업 분야의 블루오션을 만들기 위한 농산물 품질관리인증을 소개한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HACCP)'

HA

Hazard Analysis
위해요소분석

원료와 공정에서 발생가능한
병원성 미생물 등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분석



CCP

Critical Control Point
중요관리점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관리

HACCP은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이다. HACCP 인증 적용 분야는 축산물(생산·가공·유통 분야)과 식품(제조·가공·유통·외식·급식) 분야이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2019년부터는 HACCP 인증 후에 불시 평가를 시행했으며, 올해에는 안전조항과 사후관리조건을 추가하는 등 위생관리시스템을 강화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철저한 안전관리로 소비자의 식품 선택에 있어 확실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HACCP 인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인증심사, 조사·평가 및 연장심사 신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www.haccp.or.kr]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

동물복지농장 인증은 동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시행 제도로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산란계, 양돈, 염소, 육계, 젖소, 한육우, 오리)을 대상으로 한다. 동물의 고유한 습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육 환경뿐만 아니라 동물 운송 차량과 도축장 등 전 과정에서 수준 높은 동물복지 기준을 따라야 한다. 동물복지농장 인증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철저한 심사를 통과한 농장에만 부여되며 국가에서 지속해서 사후관리(연 1회)를 실시한다. 서류, 현장 심사로 인증 절차가 진행되며 동물복지농장별로 정해진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른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신청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동물복지농장 인증 마크



동물복지축산농장 간판



연대와 지원으로 청년농부 양성하는 글로벌 농촌

전 세계의 농촌은 대부분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다. 농업인의 자녀들이 다른 산업에 종사하며 농촌에 청년층이 유실되는 동시에 은퇴농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각국의 농업기반을 지킬 청년농 양성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지원정책과 청년농부 연맹 등 각국에서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활동들을 소개한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청년창업농업인 육성체계 발전방안(2018) 외



한국

4-H와 자·덕·노·체 갖춘 청년농업인 양성

4-H란 1900년 초 농업구조와 농촌의 생활개선을 위해 미국에서 처음 조직된 청소년 단체다. 명석한 머리(Head), 충성스러운 마음(Heart), 부지런한 손(Hands), 건강한 몸(Health)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나라에 기여하는 교육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단어의 의미를 각각 지(智), 덕(德), 노(勞), 체(體)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 4H 활동 지원법(2007년 12월 21일 제정)’에 입

각해 한국 4H본부와 함께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고 있다. 4H 운동의 목적은 우리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으로서 청년농업인의 자질을 배양하는 데 있다. 한국 4H 활동 지원법과 기본시책에 따라 우리나라 4H 활동추진체계는 민관협력체제에 의한 평생교육운동체로 변화되었다. 정부 부문에서는 4H 활동 지도와 지원을 담당하는 농촌지도기관과 민간 부문에서 4H 활동을 추진하는 4H 주관단체(한국 4H본부)가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4H청소년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 4H 활동 지원법’의 시책 개정을 거쳐 활동 연령을 만 7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육성단계

는 유소년, 청소년, 대학4-H, 청년농업인, 성인(지도자)로 구성되어 있다. 유소년,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교육과 체험을 통해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리더십을 함양하고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배양한다.

만 20~39세에 해당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는 리더십과 인간관계훈련과 국제 교류 등 인적지원 이외에도 농업전문교육과 실질적인 지역사회활동 등의 4-H활동을 지도하며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한다.

4-H 비전과 육성목표

4-H 비전	지·덕·노·체 4-H 이념을 실천하는 창의·융합적 미래인재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
4-H 육성목표	- 개인의 성장과 농촌에 대한 사랑의 실천 - 자연·인간·농촌에 대한 사랑의 실천 - 과제이수(프로젝트 학습)를 통한 자기개발



미국

최신 농업기술 가르치고 졸업 후에도 지원

‘미국의 미래 농부들(FFA-Future Farmers of America)’은 교육을 통해 미래 청년농부를 육성하는 학생조직으로 공식 명칭은 **National FFA Organization**이다. 1928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처음 출범한 FFA는 2018년 기준 8,630곳의 지부를 두고 있다. 가입

연령은 12~21세로, 67만여 명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학생조직으로선 미국 내 최대 규모다. FFA의 주된 역할은 학생들에게 농업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는 것이다. 농업교육프로그램이 있는 미국 내 모든 공립학교는 FFA의 지부로 공인받을 수 있으며, 교사와 회원들은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현재 1만 3,000명이 넘는 FFA 교사들이 최신 농업기술을 가르치며 학생들이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FFA는 이론을 가르치는 ‘강의실 교육’과 현장업무 중심의 ‘체험프로그램’, ‘학생 리더십 조직’ 이렇게 3개의 교육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FFA 협회 관계자는 “학생들은 토양학과 생물학 등 이론교육 외에 학교 농장에서 농작물이나 가축을 직접 기를 수 있다”며 “FFA는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직업을 연결해주거나 원하는 농장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도 FFA와 뿌리를 함께하는 FFK(Future Farmers of Korea)가 있다. 1972년에 조직돼 2018년 현재 전국 64개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 1만 7,484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국내 FFK는 농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FFA는 농업에 종사하려는 학생은 물론 교사·의사·과학자 등 다른 직업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과 사회복지 동반

프랑스는 젊은 청년들을 기반으로 한 영농후계자 조직이 농업을 이끌고 있다.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JA)**은 18~35세 미만의 영농후계자를 회원으로 하는 조직으로 현재 5만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프랑스 농업단체들 중 청년농업인, 일반농업인, 은퇴농업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JA의 목표는 첫째, 농업인의 업무를 전문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둘째, 젊은 농업인의 농업정착 시 지원체계를 최대한 적합하게 구성하며, 셋째, 농업에 대한 세대교차를 시민사회의 책무로 승화해 농업의 흥미를 만들며 넷째, 파트너십 개발을 통한 농업혁신목표를 농촌지역에 공유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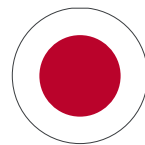
JA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키 위해 젊은 영농인의 영농정착을 돕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업부문의 직업에 대해 자긍심을 고착시키고 농업을 프로모션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영농인 조직을 강화해 프랑스 농촌의 올바른 세대교차를 통한 '농업고령화' 문제를 개선시키는 데 한 몫하고 있다.

JA를 기반으로 후계농이 양성이 수월했던 것은 프랑스는 농업회의소를 통한 '농업인이 주인이 정책'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농업인을 위한 국회라고 불릴 정도로 농업회의소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며, 정부는 농업 관련 정책과 수리비 등을 농업회의소와 먼저 상의한다.

이외에도 프랑스는 **청년농업인수당(DJA, Dotation Jeunes Agriculteurs)** 제도를 통해 청년농부들에게 2,000여 만 원가량의 청년농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로 청년직불금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2,312유로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지급 조건은 농업고교 이상의 학력과 경험, 지역이 인정하는 경영계획, 전문성개발 계획, 경영장부 작성, 농장환경 규정, 동물복



지 등 준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농업회의소를 통해 창업 농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

JAPAN FARM ON 프로그램으로 농지 승계 지원

일본은 국가의 주도하에 청년농부를 육성하고 있다. 현재 2033년까지 40대 이상 농업종사자 수를 40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농업 차세대 인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농촌의 고령화로 농업인 2세, 귀농·귀촌자 등 새로운 농업인과 새로운 농가 만들기가 필요했다. 그러나 일본의 특성상 농지를 자녀들에게 분할상속해 농가의 영세화는 가속화됐다.

이에 일본은 2012년부터 농지상속세 면제를 도입해 농지분할 상속을 방지했다. 한 명이 단독으로 농지를 상속받을 시 후계자가 20년간 농사를 지속하면 농지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해 준다. 이는 후계농들이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고, 농지의 분할을 피할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농가합병을 장려해 규모화를 키우는 것보다 지속되는 농지분할을 막는 이 정책이 현실점에서 더욱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이러한 정책은 농장승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프랑스 청년농부 수당 지급 과정

PAI: Le Point Accueil Installation
신규 취농정보

PPP: Le Plan de Professionnalisation Personnalise
맞춤형 학습 계획

PDE: Le Plan d'Entreprise
경영 발전 계획

정부 승인 및 DJA(청년취농보조)
MTS-JA(청년취농용자) 지급

의무이행
5년 영농종사, PPP, PDE 이행, 경영장부 작성
농장환경 규정, 동물복지 등 각종 규정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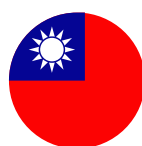


농가 만들기의 목적으로 2008년부터 ‘JAPAN FARM ON’ 프로그램을 도입키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후계자가 없는 은퇴 농업인들과 귀농을 희망하는 신규 농업인들을 매칭해 농지를 승계토록 하는 것이다. 2010년 이후에는 프로그램의 정확한 성격을 나타내고자 농장승계보조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 일본농림수산성의 지원을 통해 모든 현의 국립농업회의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랑스 DJA 제도를 벤치마킹한 일본은 창농 준비기간 2년과 창농 이후 5년 간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규 취농 경영승계 종합지원사업으로 45세 미만 청년 취농자에게 총 7년 간 급여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연



간 150만 엔으로 부부일 경우에는 1.5배를 지급받는다. 농업경영인 육성기관이나 선진농가, 법인에서 1년 이상 연수를 받을 경우에는 최장 2년간, 독립영농을 실시하는 농가에도 최장 5년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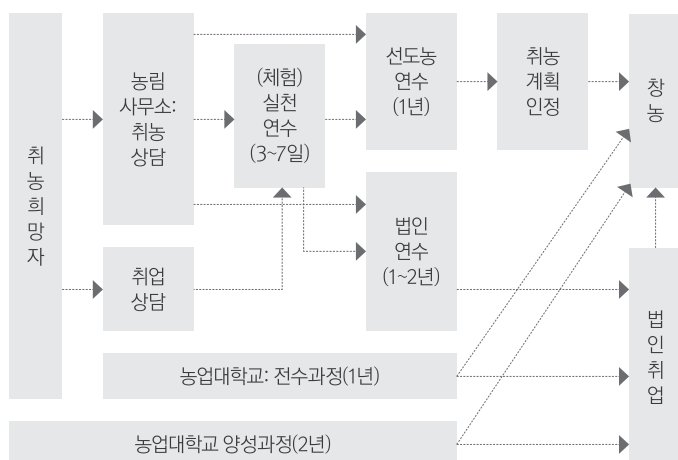
대만

농업아카데미 원-스톱 서비스

대만국립농업연구기관은 후계농 양성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농업인아카데미를 통한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농업종사자, 학생을 교육해 현재 농업을 보강하는 동시에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고자 했다.

농업아카데미 원-스톱서비스의 교육과정은 입문, 초급, 중급, 고급단계로 나뉘며, 3일간 입문과정을 통해 농업의 개념과 개요를 교육해 후계자들에게 농업관심을 제고시킨다. 이후 10~20일간의 초급과정에서 생산기술기초를 실습하고, 3~5일간의 중급과정에서 전문농업인에게 기술력을 높일 방안을 전수받고, 품질관리 개념에 대해 교육받는다. 이후 고급과정을 통해 농업지도자나 전문가를 초대해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기업경영을 실현하는 농업인들의 실무 이야기를 공유한다. 이후에는 4~12개월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해 농업을 실질적으로 터득할 수 있다. ∞

일본 청년농부 양성 과정



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청년농부’

귀농을 선택하거나 부모님의 농업을 이어받는 후계농이 늘어나며 농촌의 청년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청년농부들은 SNS로 소비자와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하거나 1차 생산 이외에도 2차 가공과 체험 활동을 활발히 시도하는 등 6차산업 도입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글 김용환 칼럼니스트



점점 늘고 있는 농촌의 젊은이들

청년 창업농부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청년농부 육성정책 등이 효과를 보며 농촌에도 청년농부의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청년농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이다. 과거에 ‘작목반’이라고 불리던 작목 위주의 모임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전남의 ‘지오콧’처럼 판로를 위한 지역 기반 모임 등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국내의 농업환경 변화를 읽고 생산유통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경영 다각화 등 경영 마인드를 가진 청년농부·후계농부들도 많아지고 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오는 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뒤 농업에 뛰어드는 청년농부들도 많다.

SNS 마케팅 활발히 펼치는 청년농부들

SNS는 오늘날 마케팅에서 빠질 수 없는 수단이 되었다. 농촌에서도 젊은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SNS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SNS를 이용하면 농작물 홍보는 물론, 소비자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실제로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의 농업법인정보화수준 및 활용도조사 결과, 농업에 SNS를 도입했다는 응답이 2016년 31%에서 2018년 34.1%로 증가했다. 농업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 SNS를 활용하는 농가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며 일상과 함께 귀농하기까지의 과정, 농사에 대한 공부방법 등을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게시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소비자는 생산자가 누구이고 재배하는 과정은 어떠한지 파악하며 농작물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된다. 특히 농작물의 맛과 가격은 물론 ‘신뢰’의 가치를 중시하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홍보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팜핑, 팜파티 등 젊은 감각의 콘텐츠로 농촌의 이미지 전환 시도

농촌에 젊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팜핑(Farmping), 팜파티(Farmparty) 등 농촌의 환경이나 농산물 등에 젊은 감각을 더한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농촌의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해외의 파티문화 중 집 정원을 활용해 주최자와 참여자가 함께 나눠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포트릭’ 파티가 있다. 주최자

의 부담을 줄여주고 개인이 준비한 음식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몰고올 수 있다. 이 **포트럭 파티를 농촌으로 옮겨온 것이 ‘팜파티’라는 새로운 콘텐츠다.**

팜파티는 과수원이나 수확이 끝나 휴지기의 시설하우스에서 특산물을 활용한 상차림으로 준비된다. 농장주인이 단독으로 주최하거나 마을주민이 공동 주최자가 되어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준비한다. **팜파티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새로운 프로모션이기도 하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동 주최자가 되어 식재료 구매를 할 수

도 있고 농가 생산물을 활용해 만든 음식을 통해 식재료의 활용방법과 실제 맛도 경험할 수 있다.

팜핑(Farmping)은 농장(Farm)과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 농장에서 즐기는 새

로운 유형의 캠핑이다. 맑은 공기와 조용하지만 정취가 느껴지는 공간에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농산물을 즐길 수 있다. 전국적으로 팜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나고 있지만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한 ‘젊은 농부들의 보라숲 관광농원’은 젊은 농부들이 모여 만든 팜핑 유원지인 만큼 젊은 감각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6차산업으로 다양한 시도

청년농부들은 농업에 뛰어든 때부터 1차농산물에서 2차가공품, 체험까지 6차산업 접목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 6차산

업이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1차산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문화·체험·관광을 서비스(3차산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지금 농촌현장에서는 6차산업이 화두가 된 지 이미 오래됐고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특히 귀농인들은 자신이 도시에서 익혔던 기술과 노하우를 자신이 생산하는 생산물과 접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경우도 많다. 도시의 직장에서 연마한 제조, 가공, 수리 등의 기술이나 경영, 마케팅, 홍보, 교육, 친절 서비스 능력이 농촌에서 새로운 융복합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스마트팜 도입으로 효율 증대

스마트팜이란 비닐하우스와 축사에 ICT를 접목해 자동으로 생육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미래농업의 활로로 꼽히는 스마트농업에 필수적인 첨단설비와 데이터 기반 농업의 접근성은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청년농부에게 용이한 편이다. 실제로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에서는 극한의 노동에서 해방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삶의 질 또한 상승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청년농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SECTION

2



미래&농업인

사람이 곧 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꿈을 꾸고, 미래를 가꾸는 사람이 곧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부진 각오로 한걸음씩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전남의 농업인들이
곧 우리 미래의 희망이 아닐까요?

- 24 전남명인 진도, 복령조화고 김영숙 명인
- 26 팜&마케팅 지오쿠퍼협동조합 윤영진, 김영순, 김지훈, 장민주, 차주훈 대표
- 30 청년이 온다 나주 철야마루영농조합 서재정 대표
- 34 남도 여기! 평온함 가득한 남쪽 끝 마을
장흥 1박 2일

전통방식으로 정직하게 빚어낸 약(藥)떡, 복령조화고

진돔개와 아리랑에서부터 자연유산인 윤림산방까지 유무형의 보물이 많은 진도에는 또 다른 보물인 전통떡 복령조화고가 있다. 조상 대대로 즐겨먹던 복령'을 소나무에서 채취한 버섯 '복령'을 주재료로 하며, 김영숙 명인은 1966년 결혼으로 진도에 정착하게 되며 가문에서 전통비법을 전수 받아 옛 방식 그대로의 전통떡을 만들고 있다.

글 한희진 사진 진도전통식품



대한민국 식품명인 53호

김영숙 명인

충청도에서 나고 자란 김영숙 명인에게 '복령'은 익숙한 식재료였다. 하지만 전통떡 복령조화고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66년 결혼으로 진도에 정착하게 되면서부터다. 진도 지산면 인지리 순창설씨 가문으로 시집온 명인은 가문에서 내려온 제조방식을 전달받고 현재 원형 그대로 보존해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다.

멥쌀과 복경을 주재료로 만든 복령조화고는 <규합총서>에도 나올 만큼 조상 대대로 즐겨먹던 전통떡이다. 명인의 떡에 특별한 재료가 되는 복령은 <동의보감>에 노폐물 배출과 신진대사 촉진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약재로 쓰이지만 담백한 맛이 떡과도 잘 어울린다. 백설기와 비슷한데 멥쌀과 복령을 주재료로 만들어 복령조화고라 한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쉽게 복령떡이라고도 부른다.

복령이란 40~60년 된 죽은 소나무에서 기생하는 버섯으로 복령 채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소나무 뿌리에서 튼실하게 뻗어있는 쪽을 찾아 따라가며 복령침을 통해서만 가능한데다가 1년에 딱 두 번, 봄과 가을에만 채취 할 수 있다. 채취한 복령은 먼저 껍질을 벗겨서 잘 손질한 후 얇게 썰어 말린다. 이렇게 잘 말린 복령을 절구통에 넣고 수십 번 찧어주면 복령조화고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복령가루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명인은 문중 산에서 캔 복령을 바로 냉동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가루를 내서 쓴다. 울퉁불퉁하고 못생겼지만 달고 심심한 맛이 떡 재료에 적당하다. 멥쌀에 복령, 산약(마), 검은(가시연밥), 연자육(연꽃 씨앗)을 넣고 사탕가루로 맛을 내는 것이 전통적인 조리법이다.

복령을 비롯해 여러 가지 약재를 넣지만, 약 냄새나 쓴맛이 없다. 또 백설기는 먹다 보면 목이 메는데, 복령조화고는 물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넘어간다. 씹을수록 침이 나와 부드럽게 넘어가고 소화도 잘 된다.

옛 조상들의 방식을 고수하며 복령조화고의 전통을 이어온 명인은 지난 1995년 진도전통식품을 설립하며 복령조화고를 세간에 알리기 시작했다. 복령이 가진 탁월한 노폐물 배출 및 신진대사 효과 때문에 소화기가 약해진 환자들에게 약떡으로 알려지며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전통 제조법으로 만든 복령조화고가 알려지며 명인은 2001년 농림부가 선정하는 신지식농업인장에 선정된 데 이어 전라남도의 향토음식 명인 9인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2013년 대한민국 전통식품 53호 명인으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

복령조화고

업 체 명	진도전통식품
대표자명	김영숙
주 소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인자인천2길 6-15
T E L	061-542-0011
홈페이지	www.jindofood.co.kr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김영숙 명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영숙 명인의 성공 노하우

약재로도 쓰이는 '복령'이 주재료

복령은 발채한 소나무나 죽은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버섯으로, 땅속 30cm 깊이에서 자란다. 이노, 강장, 진정에 효능이 있어 한약재로 쓰인다. 이 때문에 복령조화고는 노폐물 배출과 신진대사 촉진의 효과가 있어 약떡이라고 불린다.

우리 땅에서 난 우리 재료를 사용

주재료인 복령은 김영숙 명인의 문중 산에서 채취한다. 이 복령을 바로 냉동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가루를 내서 쓴다. 부재료인 구기자, 흑미, 대파, 울금 등의 재료는 지역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우리 땅에서 난 좋은 농산물을 활용해 몸에 좋은 떡을 만든다.

건강에 맛을 더하다

복령조화고는 복령을 비롯해 여러 가지 약재를 넣지만, 약 냄새나 쓴맛이 없다. 사탕가루 대신 꿀을 넣어 그런지 달지 않으면서도 자꾸 손이 맛있다고. 전통적인 비율에 따라 만든 복령조화고도 약재의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아이들이나 한약재를 싫어하는 이들을 위해 복령의 비율을 낮춘 떡도 만든다.





전남의 청년농부들, 상생으로 나아가다

지오쿱협동조합

최근 몇 년 사이에 농촌에 청년들의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며 관련 커뮤니티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 이중 지오쿱협동조합은 전남의 청년농부들이 '판로개척'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발족한 단체다. 코로나 19로 오프라인 활동에 제약이 걸린 이 시기, 이 청년들은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홍보와 판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글 백미희 동영상·사진 홍승진

시너지 효과 키우는 청년농부 커뮤니티

최근 들어 시군별로 청년농부 협동조합이나 연합회 등이 많이 생겨나며 청년농부들은 커뮤니티 기반으로 활발한 정보교환을 나누고 있다. 그중에서도 2017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 출신 청년 창업농부가 주축이 되어 탄생한 '지오쿱협동조합'은 당시에 드물게 35명이라는 대인원이 모여 '판로개척'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발족한 단체다.

"지오쿱의 철자는 Zest In Our Coop의 약자입니다. Zest는 열정과 맛(요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농부들의 열정과 우리가 생산하는 맛이라는 가치를 모두 포함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오쿱의 조합원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유통채널을 활용해 공동 판로를 개척했고, 서울먹거리창업센터 가락몰에 입점하거나 지역 특산물 홍보 판매관인 '팔도마당'에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에는 '청년농부'에 대한 개념이 생소했어요. 저희가 농협 양재점에도 지난해까지 '전남청년농부 산지직송전'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4회 정도 판촉행사도 했고, 부산의 대형유통채널인 메가마트와 계약을 맺어서 매장을 순회하며 특별전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서 '젊은 친구들이 직접 키운 작물을 판매한다'며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오쿱에 소속된 50명의 조합원들은 각각 쌀, 잡곡, 과수, 채소, 버섯, 특용작물 등 다양한 작물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2차 가공식품을 만들거나 체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전남농업 유튜브 채널과 연결돼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이용방법

- ① 스마트폰에서 QR코드 앱 설치
- ② 앱 실행 후 사각형 테두리 안에 QR코드가 보이도록 위치
- ③ 인식된 결과 화면 이동



아름답게그린배 김영순 대표, 정담은농장 김지훈 대표, 믿음영농조합법인 윤영진 대표,
삼광버섯영농법인 차주훈 대표, 고추마을영농조합법인 장민주 대표



협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게다가 각자 생산, 가공, 유통, SNS 홍보 등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가진 만큼 소속 조합원들이 얻어갈 수 있는 노하우와 혜택이 다양하다.

“농가마다 환경이나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표고버섯 하나만 예를 들어도 유통, 배지, 생산 등 각자 전문분야가 다르기 마련이거든요. 게다가 단순히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 이외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기도 해요. 일례로 SNS 마케팅인 조합원이 다른 농가의 제품 판매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설비를 갖춘 농가에서 가공을 맡아주기도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홍보와 판로 모색 중

올해 지오콥은 3기 회원을 받아 50명의 정원을 갖추게 되었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오

프라인 모임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온라인 역량 강화를 이루는 시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는 예전처럼 잦은 오프라인 모임이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조합원 중 온라인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해주셨어요. 그런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설사 실시간으로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콘텐츠가 남아 있으니 영상을 공유해서 나중에 볼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언택트 활동을 모색해볼 생각입니다.”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해 각 농가에 대한 소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올해 목표 중 하나다. 이외에도 조합원들이 각자 전개하고 있는 6차산업을 묶어줄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전남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소비자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지오콥협동조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면 각자의 경쟁력 또한 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판로개척이라는 목표 아래 모였지만 청년들은 커뮤니티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을 '소속감'으로 꼽았다. 비슷한 처지에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료의 존재는 항상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각자의 역량을 키우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지오쿱의 청년들, 이들이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활동은 우리 농촌에 어떤 활기를 불어넣게 될까? ∞



ZOOM IN

전국 최대 규모의 청년농부 커뮤니티

2017년 1월에 설립된 35명의 인원으로 출범한 지오쿱협동조합은 현재 50명의 전남의 청년농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에는 4~5인 정도의 협동조합이 많았지만, 이 정도의 대규모 인원이 뭉친 협동조합은 광역단체로서 최초의 사례였다.

함께 판로를 확보하다

지오쿱의 설립 목적은 '판로 확대'였다. 조합원이 가진 유통 채널을 활용해서 공동 판로를 확보했으며, 실제로 서울먹거리창업센터 가락물에 입점하고 지역 특산물 홍보 판매관인 '팔도마당'에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전문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하다

50인이라는 청년농부들이 각자 다양한 작물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1차생산, 2차가공,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생산, 가공, 유통, SNS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노하우를 전달받을 수 있다.



선배농부의 TIP

커뮤니티를 활용하라

청년들이 농촌에 왔을 때는 농사관련 경험이 부족하거나 전문적인 경우가 많고 유통구조 등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연고가 없는 귀농인의 경우에는 소속감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이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를 줄일 것

가끔 청년농부들이 초반에 과하게 투자를 했다가 빚 때문에 농촌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일어납니다. 판매루트라든지 기반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과한 투자는 하지 않는 등 개인의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도전하고 시도하라

젊음의 특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개인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되,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면 항상 시도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가능성 있는 아이템이라면 기관과 지역에서 지원의 손길을 건네는 것은 물론이고, 커뮤니티 내에서도 아낌없이 피드백과 격려를 건넬 것입니다.

지오쿱협동조합

설립연월	2017년 1월
홈페이지	www.ziocoop.com
T E L	061-333-8367



나주 고구마, _____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나주 철야마루영농조합 서재정 대표



나주는 고구마로 유명한 지역은 아니다. 하지만 황토 땅 덕분에 고구마가 자라기에 알맞은 환경을 갖고 있다. 6년 전 고구마 판매를 위해 영농조합을 설립하고 매출을 4배까지 키워낸 이 청년농부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고향 땅 나주에서 일명 ‘없어서 못 판다는’ 맛있는 고구마를 키워내 널리 알리고 있는 철야마루영농조합의 서재정 대표를 만나보았다.

글 백미희 사진 홍승진

품질로 승부하는 나주 고구마

나주 봉황면 철천리에는 약 56만 m^2 의 부지에 고구마 농사를 지으며 연 4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청년농부가 있다. 최근 들어서 나주에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지만 원래 나주는 고구마로 유명한 지역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6년 전 철야마루영농조합을 설립해 고구마농사를 짓고 있는 서재정 대표는 어떻게 단기간에 국내 대기업들과 대량의 납품 계약을 맺고 이렇듯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일까?

지금은 나주에서 가장 큰 고구마밭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가 고향인 나주에 내려올 때만 해도 직접 농사를 지을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철야마루영농조합을 시작할 때만 해도 농사는 짓지 않고 나주 고구마 판매만을 담당했다.

“처음에는 시장조사 겸 공부를 위해 농산물 인터넷 판매 업체에서 2년간 근무했어요. 그러다가 나주가 고구마를 키우기 아주 적합한 땅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영암하고 나주가 땅이 황토라 고구마에 잘 맞는데 나주 고구마는 잘 안 알려진 편이긴 하죠.”

서 대표는 6년 전 나주 고구마 판매를 위해 철야마루영농조합의 문을 열었다. 첫해에는 전량을 수탁판매 형태로 진행했지만 품질관리의 문제가 생겨서 고구마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분명히 싱싱한 고구마를 포장해서 보냈는데 썩었다고 연락이 오거나 당도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 등 품질관리가 원활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농사를 시작하게 됐죠.”

약 16만 m^2 규모로 시작한 고구마 농사가 현재는 4배 정도 커져 56만 m^2 규모에 다다랐다. 10억 원 정도였던 매출도 40억 원까지 늘어났으니 6년 새에 급격한 성장을 이룬 것이다. 서 대표는 빠른 성장의 비결을 ‘고구마의 품질’로 손꼽았다. 품질관리 관심이 많



은 서 대표는 2년 전 나주의 고구마연구회를 만들어 현재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저희는 땅을 5m 깊이 정도 뒤집어서 묵은 흙을 집어넣는 게토 작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요즘은 많은 농가에서 하고 있긴 한데 저희는 좀 빨리 시작한 편이죠. 이외에도 고가의 영양제를 많이 사용해요.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3~4회 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는 10회 이상이니 좋은 영양분을 많이 주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당도가 높은 것은 물론 저장성도 좋아요. 고구마를 사면 보통 신문에 써서 보관하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판매 사이트만 봐도 그런 문구가 없어요. 그냥 상자 뚜껑만 열어두시라고 해요. 저장성이 좋아서 썩지 않거든요.”

품질이 좋기로 소문이 나자 대기업에서 먼저 연락

이 오기 시작했다.

“품질이 좋다 보니 다들 먼저 알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현재 이랜드리테일, GS리테일과 납품계약을 맺고 김스클럽에 연간 1,000톤, GS25 편의점에 연간 500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 모두 먼저 연락을 주셔서 납품 계약을 맺었어요. 사실 56만m² 규모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전량을 일체의 영업활동 없이 판매하고 있어요.”

고구마에 대한 끝없는 고민과 연구

철야마루영농조합의 특징 중 하나는 젊은 직원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서 대표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직원들은 구매, 재배를 비롯해 세척, 선별, 포장,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원 젊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나주 철야마루영농조합
서재정 대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철야마루영농조합의 고구마는 품질관리를 일정하게 하면서도 대량생산으로 단가를 낮춰서 판매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량 생산을 하면서 일정한 품질을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서 대표는 “젊은 직원들이 열정을 다해 밭로 뛰면서 이룬 성과”라며 젊은 직원을 고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는 종순도 구입해서 쓰고 있지만 여력이 된다면, 하우스를 지어서 종순 연구도 시작하고 싶다고. 고구마말랭이나 아이스 고구마 등 2차가공에도 관심이 있지만 아직은 고구마를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더 늘린 뒤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사실 제가 시도해 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2차가공품을 만들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구마밭 체험도 해보고 싶어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6년 만에 매출 40억 원을 달성한 법인의 대표로서 그는 청년 농들에게 ‘작물 선택’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요즘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실패해서 상처를 안고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농사지를 작물을 스스로 오랜 시간 연구하고 고민한 뒤 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행하는 작물을 선택하면 이미 레드오션이 되어서 판매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불어 1차생산 없이 2차가공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1차생산의 연중 가격변동에 대해 확실하고 파악하고 시작하셔야 해요. 고구마말랭이를 예로 들면 한창 생산될 시기에는 킬로그램당 700원이었던 가격이 요즘 같은 여름에는 4,000원까지 나가요. 1차 농산물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작할 때 규모를 작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나주 고구마를 널리 알리고 있는 서재정 대표. 철야마루영농조합의 사업 영역이 더 늘어나고 6차산업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의 뇌리에도 고구마 하면 ‘나주’가 떠오를 날도 머지않을 듯싶다. ∞



평온하고 가득한 남쪽 끝 마을

장흥 1박 2일

1
DAY

선학동마을



편백숲 우드랜드

첫째날, 그린 듯한 장흥의 풍경을 즐기다

첫 날의 일정은 가을이 되면 맑은 하늘 아래 마을을 뒤덮는 메밀꽃이 절경인 선학동마을에서 시작해 보자. 이곳은 2012년 가장 아름다운 농어촌으로 선정된 곳으로 산책로의 메밀밭이 잘 다듬어져 있고 군데군데 쉬어갈 정자도 있어서 운치를 더한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에는 눈이 내린 듯한 하얀 메밀꽃 풍경 속으로 떠나보자. 매년 10월에는 마을주민들이 주도해 메밀꽃 축제가 열린다.

한우의 고장 장흥에 왔다면 한우삼합을 맛봐야 한다. 은은한 표고향과 쫄깃한 식감, 일안에서 풍성하게 녹아드는 장흥 한우, 득량만에서 공수한 키조개의 관자살이 어우러진 한우삼합은 장흥에서 꼭 먹어봐야 할 으뜸요리로 손꼽힌다. 장흥 9미 중 황칠백숙도 추천한다. 닭백숙에 황칠나무나 추출액을 넣어 조리하여 영양이 넘치는 황칠백숙은 국물 맛이 개운하고, 육질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되어 누구나 부담없이 먹을 수 있다.

10:00

선학동마을

문의 장흥군청 관광안내 061-860-5771~5773
주소 전남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1212
선학동마을



12:00

맛집 추천!

장흥한우 삼합구이 전남 장흥군 장흥읍 토요시장2길 9-2
소고기한우삼합, 남도정식 등
덕인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의향길 7-3
황칠백숙 등



13:30

편백숲 우드랜드

문의 관리사무소 061-864-0063
매표소 061-864-7911
홈페이지 <http://www.jhwoodland.co.kr>
관람시간 08:00~18:00
이용요금 어른 3,000원 /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주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드랜드길 180

가을의 고즈넉함을 만끽하고 싶다면 장흥으로 떠나보자. 가을이 되면 장흥은 눈 내린 듯한 메밀꽃밭, 한 폭의 동양화 화폭처럼 펼쳐지는 천관산의 억새밭 등 농치기 아까운 풍경이 곳곳에 펼쳐진다. 한우와 표고, 관자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한우삼합과 장흥의 자랑인 매생이탕도 맛볼 수 있는 1박 2일 코스를 소개한다.

글 권지혜 사진 장흥군청



목재문화체험관



소등섬

한우삼합과 황칠백숙으로 든든히 배를 채웠다면 아름다리 40년생 편백나무가 빼곡이 들어선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산책을 즐겨보자. 100ha에 40년생 이상의 아름다리 편백나무가 심어져 있고 톱밥 위를 걸을 수 있는 산책로도 준비되어 있다. 편백숲 우드랜드는 목재문화체험관, 목공 및 생태건축 체험장, 숲 치유의 장, 산야초 단지, 말레길 등이 전시와 체험공간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첫째날을 마무리하는 일정은 일몰이 아름다운 명소 **소등섬**

을 추천한다. 소등섬은 남포마을 앞에 떠있는 작은 무인도이다. 먼 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간 남편이나 가족들을 위해 호롱불을 켜놓고 그 불빛을 보고 무사히 귀환하기를 빌었다하여 소등섬이라 불린다고 한다. 소등섬은 일출과 일몰의 명소이기도 하지만 신비한 바닷길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하루 두 세 차례 썰물 때가 되면 바닷물이 빠지고 섬으로 이어진 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 바다를 가로질러 나타난 길로 소등섬까지 걸어갈 수 있다.



15:30

소등섬

문의 장흥군청 관광안내 061-860-5771~5773

주소 전남 장흥군 용산면 상발리 산225



2
DAY

천관산



장수풍뎡이마을

둘째날, 장흥의 자연을 만끽하다

가을에 장흥을 찾았다면 빼놓지 않고 보고가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천관산의 억새밭이다. 호남 5대 명산 중 하나인 천관산은 다양한 모양으로 솟아 있는 기암괴석이 마치 주옥으로 장식된 천자의 면류관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산을 오르면 남해안 다도해가 한 폭의 동양화처럼 펼쳐지고 계절마다 다양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가을에는 드넓은 억새밭이 특히 아름답다. 천관산은 오르는 코스가 많은

데 산세가 험하지 않고 정상까지 등산로가 능선마다 있어서 비교적 오르기 쉽다.

점심식사로선 예로부터 장흥의 진상품이었던 매생이를 이용한 매생이탕을 추천한다. 생김새가 파래와 비슷한 매생이는 깨끗한 바다에서만 자라는 해조류로, **장흥의 매생이탕**은 매굴과 양념을 참기름에 볶은 뒤 매생이를 넣고 끓이는 국이다. 부드럽고 감칠맛이 진하며, 구수한 뒷맛이 좋다. 새콤달콤 바지락

10:00

천관산

문의 061-867-7075
주소 전남 장흥군 관산읍 천관산



12:00

맛집 추천!

토정황손두꺼비국밥 전남 장흥군 장흥읍 토요시장2길 매생이탕, 낙지국밥 등
명희네음식점 전남 장흥군 장흥읍 토요시장2길 3-6 바지락회무침, 바지락비빔밥 등



13:30

장수풍뎡이마을

문의 061-860-0328
주소 전남 장흥군 유치면 반월리 일원





정남진전망대



정남진전망대

회무침과 시원한 바지락탕도 일품이다.

장흥의 별미를 즐기고 난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장수풍뎡이를 관찰하러 떠나보자. 유치면 반월리에 위치한 **장수풍뎡이마을**은 장수풍뎡이와 사슴벌레 등 다양한 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봄에는 산나물을 채취하고 가을에는 표고버섯을 따는 등 자연 속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장흥댐 최상류에 위치해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이곳은 사전 예약할 경

우 황토한옥에서 숙박도 가능하다.

장흥여행의 마지막은 푸르른 에메랄드빛 남해바다와 웅장한 천관산 등 장흥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정남진전망대**에 올라보자. 전망대는 축제관, 이야기기관, 푸드홍보관, 트릭아트포토존 등 층별로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게다가 정남진전망대는 야경으로도 유명한데, 밤이면 색깔별로 변하는 불빛과 어둠에 잠긴 앞바다를 내려다보는 것도 운치 있다. 



14:30

정남진전망대

문의	061-867-0399
관람시간	3월~10월 : 09:00~20:00 11월~2월 : 09:00~19:00
이용요금	어른 2,000원 / 청소년 및 군인 1,500원 어린이 1,000원
주소	전남 장흥군 관산읍 정남진해안로 242-58 정남진전망대



SECTION

3



농업&전남농기원

농업은 우리의 생명의 산업이자, 삶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삶의 터전인 전남에서 더욱 밝게 빛을 내도록 앞선 생각,
 더 나은 기술로 농부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여유로워지도록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함께합니다.

40	농기원 기고	조동호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강소농민간전문가
42	귀농정보	영광군·장흥군 귀농귀촌 정책
44	농업인 건강정보	수확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이 우선!
46	농기술정보 1	기나긴 장마 후 과일 품질을 높이는 과수원 관리 노하우
48	농기술정보 2	초가을 무르익기 전, 더 조심해야 할 과수 병해충
50	교육프로그램	11월 교육프로그램 안내
52	JARES NEWS	
58	남도축제	

청년농부, 맞춤형 농장경영계획부터 수립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강소농민간전문가

조 동 호

코로나 19로 국경 폐쇄나 국가별 이동제한 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식량 생산과 물류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먹거리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해야 하는 농업·농촌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농가 인구는 갈수록 고령화되고 감소하고 있어, 농촌 청년 유입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남의 농가 인구는 2010년 39만 5,835명에서 2019년 29만 7,890명으로 9년 동안 25%인 9만 7,945명이 감소했다. 전체 농가 중 39세 이하 농가 인구는 8만 8,610명에서 4만 1,045명으로 절반이 넘는 무려 4만 7,560명이 감소해, 농촌에 20~39세 청년 인구의 비중은 전체 농가 인구의 7%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촌 인구감소는 읍·면 소재지에 있는 목

욕탕이나 오락실, 문구점, 세탁소와 같은 각종 편의시설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은 삶의 질이 낮아지면서 청년들이 외면하게 되어 곧 인구소멸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감소추세를 보였던 전남의 2019년 25세~34세 청년 농업인구가 2018년에 비해 542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선 6기부터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도정목표**로 청년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농촌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농촌이 젊어지고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증가에 머무를 것인지는 청년농부들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들의 성공사례를 통해 농촌 청년 유입에 지속성을 보장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촌에 정착을 시도하고 있는 청년들의 농업여건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생산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농산물은 수급 불안정으로 적절한 가격보장이 안 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각종 재해는 증가하고, 인구감소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농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험이 부족한 젊은 청년들이 농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장의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고, 농장 여건에 맞는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생산이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추진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필자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강소농 지원단에서 민간전문가로 근무하면서 이제 막 농사를 시작하려는 많은 청년농부들을 만나고 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농장경영계획을 수립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농사를 지어보려는 청년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수많은 청년들이 뚜렷한 목표와 계획 없이 기존 농가들의 경영방식을 답습하고 있었다. 철저한 경영전략을 수립한 후 농사에 도전해도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

이 현실인데 너무 안타까웠다. 일례로 필자가 지난 7월에 컨설팅을 다녀온 표고버섯 농가는 철저한 준비 없이 농사를 시작하여 큰 낭패를 보았다. 지난해 표고버섯 균주를 접종했는데 올해 버섯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버섯전문가와 합동 컨설팅을 통해 원인을 찾아본 결과, 지난해 여름 40℃ 이상 고온으로 지속된 기간이 길었고 재배관리 기술부족으로 버섯균이 폐사했기 때문이었다. 큰 비용과 노력을 들였는데 결국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는 너무 안타까웠다. 철저한 준비 없는 시작이 실패를 불러온 것이다.

농업은 생산의 고정성 때문에 첫 출발이 중요하다. 작목 선정부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늘고 있다. 이젠 이런 지원사업이 사업계획을 평가한 후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공모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분명 청년농업인에게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필자는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기회 요인을 잘 살려, 농장여건에 맞는 맞춤형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전남농업기술원에서 2010년부터 추진하는 농업청년창업지원사업도 농촌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경영여건에 맞는 농장경영전략을 수립해야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사 경험이 부족한 예비창업농들에게 맞춤형 ‘농업창업 비즈니스 모델’ 설계과정을 운영하여 원가절감은 물론,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과 시장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 후 창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화순의 ‘황금눈쌀’은 전남농업기술원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성공한 사례로, 영양성분이 많은 쌀눈을 아이템으로 활용하여 도정방법과 재배방법 등에서 차별화를 시도하여 상품화했다. 현재 유기농 황금눈쌀 20kg 한 포대는 일반 쌀보다 무려 2배 정도 높은 10만 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농업에도 비즈니스가 필요하다. 주먹구구식 농사로는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농식품 소비행태가 달라지면 농사도 그것에 맞게 제품과 서비스 차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앞으로 국내외 농업 환경은 청년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농촌정착에 더욱 힘든 장벽이 될 수도 있다. 농사를 시작하려는 청년들은 생산에서 판매까지 내 농장에 맞는 경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착오를 줄여야 힘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농업인이 많아야 농촌 청년 유입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 관련 기관에서도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맞춤형 농장경영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청년농업인이 과학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농업경영 활동을 통해 미래농업을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되고, 선진농업 국가들의 선도농업인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 수 있을 때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가능성의 꿈을 **영광**에서 펼치세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영광군에 이주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사업량	15개소 / 23억 2,950만 원
사업비	융자 100%(대출금리 2%) * 농업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 주택자금 7,500만 원 이내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사업내용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축사 신축·구입, 농기계 등 /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
신청시기	상반기(1~2월), 하반기(6~7월)
모집방법	영광군 홈페이지 모집공고

귀농귀촌 어울림마을 프로그램

지원대상	관내 5인 이상의 주민공동체(대표 귀농귀촌인), 구성원 중 귀농귀촌인 20%(대표 포함) 이상 반드시 포함
사업량	1개소
사업비	1,000만 원(국 100%) * 개소당 1,000만 원(보조율 100%) 지원
사업내용	귀농귀촌인의 이주경험을 공유 또는 서로 공감·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농촌이주 5년 미만, 만 65세 이하 귀농인, 농촌진흥기관 창업교육을 참가한 예비 귀농창업 실행 가능자, 농촌지역 이전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사업량	1개소
사업비	1,000만 원(국 300 / 도 200 / 군 500) - 개소당 100만 원(보조율 100%) 지원
사업내용	창업교육, 현장 창업컨설팅, 예비창업비(홍보자료, 시제품 제작 등)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2인 이상 가족과 함께 영광군 전입 6개월 이상 5년 미만 세대주, 만 65세 이하 귀농인, 농촌지역 이전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사업량	10개소
사업비	5,000만 원(국비 100%) * 개소당 500만 원(보조율 100%)
사업내용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도배 및 장판 교체, 지붕수리 등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지원대상	2인 이상 가족과 함께 영광군 전입 6개월 이상 5년 미만 세대주, 만 65세 이하 귀농인, 농촌지역 이전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사업량	5개소
사업비	2,000만 원(국 500 / 도 100 / 군 400 / 자 1,000) * 개소당 100~400만 원(보조율 50%) 지원
사업내용	소형농기계 구입비 50%



귀농인 창업농 지원사업

지원대상	2인 이상 가족과 함께 영광군 전입 6개월 이상 5년 미만 세대주, 만 65세 이하 귀농인, 농촌지역 이전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사업량	2개소
사업비	1,000만 원(국 500 / 자 500) * 개소당 500만 원(보조율 50%) 지원
사업내용	당해연도 사용할 농자재 구입비용의 50%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지원(귀농인 선도농가 멘토링 교육)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귀농인,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등
사업량	16팀(연수생 + 선도농가/팀)
사업비	9,600만 원 * 개소당 600만 원(선도농가 200, 연수생 400만 원 지원)
사업내용	현장실습 연수비(최대 8시간씩 20일 / 월 기준) * 연수생 80만 원 / 선도농가 40만 원

귀농귀촌인 주민화합행사(집들이) 지원사업

지원대상	2인 이상 가족과 함께 영광군 전입 1년 이하 세대주, 만 65세 이하 귀농귀촌인, 농촌지역 이전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사업량	20세대
사업비	1,000만 원(국 500 / 도 100 / 군 400) * 세대당 50만 원(보조 100%)
사업내용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 화합행사

귀농귀촌인 홍보물품(수건) 제작 지원사업

지원대상	영광군 전입 1년 미만 세대주, 만 65세 이하 귀농귀촌인, 농촌지역 이전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자, 단독세대 가능
사업량	30세대
사업비	750만 원(국 375 / 도 75 / 군 300) * 세대당 25만 원(보조 100%)
사업내용	주민 인사용 수건 50매

귀농·귀촌 1번지 인생 2막은 정남진 장흥에서!

귀농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지원대상	장흥군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인 귀농어업인
지원내용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창업자금 농업·축산·어업 창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구입 지원 (3억 원 한도) 주택수리비 주택 신축 및 구입 자금 지원(7,500만 원 한도)

귀농어업인 지원사업(보조)

지원대상	장흥군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인 귀농어업인
지원내용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수리비 지원 창업자금 농업·축산·어업·임업 창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구입 지원 (1,000만 원 한도 지원, 자담 50% 별도) 주택수리비 본인 명의 주택 및 향후 5년 이상 임대주택 본체 내외부 수리 지원(500만 원 한도 지원, 보조 100%)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녀를 둔 농어업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증 보유 농어업인 제외)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지원(1학년, 사립학교 2, 3학년)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 농어업인 및 법인
지원내용	융자(연 1%) / 개인 1억 원 이내, 법인 5억 원 이내 ※ 시설자금(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운영자금(2년 거치 1년 균분 상환)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대상	전남도 내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하 농어업인
지원내용	융자 연 1%(개인 1억 원 이내, 법인 2억 원 이내, 학사농 2억 원 이내) ※ 시설자금(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운영자금(2년 거치 1년 일시상환)

귀농인의 집 운영

소 재	장흥군 용산면
자격기준	장흥군에 전입해 귀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도시민(전입 1년 이내)
입주기간	3~6개월(1회 연장 가능)
선정절차	공고모집 → 선정 → 계약 → 입주
임 대 료	보증금 20만 원, 월세 6 ~ 14만 원

귀농체험관 운영

소 재	장흥군 안양면
자격기준	도시민 중 귀농귀촌을 희망하여 농촌체험 및 정보수집을 하고자 하는 자
입주기간	단기(1박 2일 ~ 2박 3일)
선정절차	전화예약제
임 대 료	1박 19,800원

수확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이 우선!

수확철,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와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농작업 및 농기계 사고는 일반적인 사고보다 신체 손상과 인명피해가 크며 그중에서도 농기계에 끼이거나 감기는 사고는 심각한 영구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농기계 끼임·감김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안전사고이므로, 사고원인 및 안전수칙을 이해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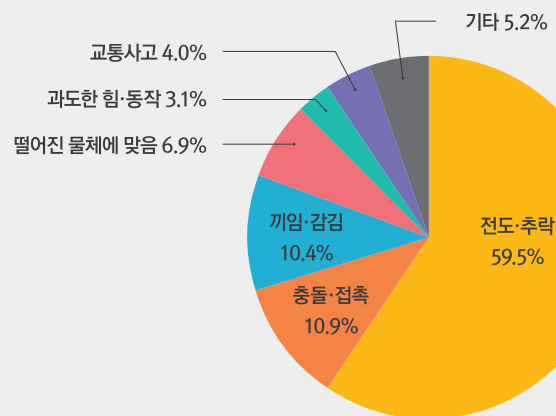
출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행정안전부는 수확기를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019년 재난연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981건이며 이로 인해 6,49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운전부주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음주·과속 등 안전수칙 불이행, 정비불량 순으로 나타났다.

또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 조사에 따르면 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트랙터, 예초기, 관리기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경운기의 전도와 추락이 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 고령화에 따라 노령층에서의 사고 비율도 높아 전체 사고의 67%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 전후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농기계 전도·추락은 59.5%, 충돌·접촉은 10.9%, 끼임·감김은 10.4%에 이르러 자주 발생하는 사고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2019)



사고유형 및 안전수칙



농기계(경운기)의 이동 중 사고

다른 농기계와 달리, 경운기 사고는 이동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경운기 사고의 44%). 특히 경사진 커브길이나 급커브길에서 방향을 제대로 전환하지 못하여 도로 밖으로 경운기가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가장 빈번하였다. 또한 경운기 후진 작업 시 사고와 노후된 경운기의 브레이크 등 중요 부품이 점검·수리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도 잦았다.

안전수칙

- 경운기로 내리막이나 오르막길을 주행할 경우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인 상태에서 진입하고 방향 전환은 수동으로 한다.
- 근력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조향 클러치(사이드 클러치)를 사용하게 될 경우 회전 반경을 넓게 돌면서 조향 클러치를 짧게 잡았다 뉘다를 반복하며 방향을 전환한다.
- 경운기의 조향 클러치 조작은 저속 주행과 논·밭 내에서만 하며, 고속 주행 시나 내리막길·오르막길에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내리막길에서 조향 클러치 조작 시 평지에서와는 반대로 굽은 쪽의 저항이 사라져 조작한 쪽과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유의한다.
- 내리막길 방향 전환이나 정지 시에는 트레일러 브레이크를 먼저 작동시킨다.



농기계 끼임·감김 사고

농기계의 회전체에 신체가 감기거나 끼이는 사고 역시 경운기와 관련되어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그 다음으로 콤바인, 트랙터, 탈곡기 등에 발생했다.

주요 사고사례는 경운기에 부착한 농약 살포기나 탈곡기를 경운기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조작하다가 벨트에 손이 말려 들어가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 콤바인에 벼를 직접 투입하다가 손이 들어가 절단된 경우, 축산 사료급이기의 전원을 끄지 않고 조작하다가 장갑 낀 손이 말려 들어가 손가락이 골절·절단된 경우, 절단기에 바지가 말려 들어가 다리가 베이는 사고 등이 있었다.

안전수칙

- 회전체의 조작·점검·수리 시에는 반드시 회전체의 시동을 끄고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한 후 실시한다.
- 회전체 작업 중에는 옷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소매·바지 밑단을 정리하고, 헐렁하거나 끈이 치렁거리는 옷을 입지 않으며, 장갑을 끼지 않도록 한다.
- 농기계 구입 시 회전체에 안전 덮개가 덮여 있고, 회전체의 작동·멈춤 스위치가 작업 시 가까운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구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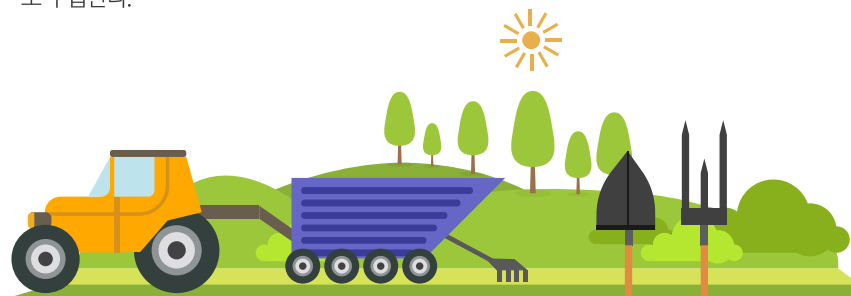


농기계 교통사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는 4.0%으로 낮은 편이지만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5배 정도 높다. 특히 낮 시간대에는 농기계와 일반 차량이 측면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어두운 시간대에는 일반 차량이 농기계를 식별하지 못해 뒤에서 농기계를 추돌하는 사고가 주로 발생하였다.

안전수칙

- 도로 주행 농기계는 저속차량 표시등, 후미등, 방향지시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관리한다.
- 도로 주행 중에는 경운기 조향 클러치를 사용하지 않으며, 트랙터의 경우 좌우 브레이크 페달을 반드시 연결하여 급회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한다.
- 경운기 또는 트랙터 트레일러에는 수확물 등을 적정한 높이로 싣는다. 짐을 너무 높게, 많이 싣으면 등화장치를 가리거나 쓰러질 위험이 높다.
- 도로 주행 시 교통안전 법규를 반드시 준수한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일단 정지한 후 신호를 확인한 다음 진행한다.



기나긴 장마 후 과일 품질을 높이는 과수원 관리 노하우

수확을 앞둔 가을철, 과수원에서는 병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고 강한 태풍이나 폭우에 대비하며 좀 더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신경 써야 한다. 보통 9월 하순부터 11월 상순까지가 수확 적기이므로, 9월 초순부터 생산·유통을 준비한다면 알이 굵고 빛깔 좋은 과일을 얻을 수 있다.

출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마가 끝나고 발생하기 쉬운 잎타기 증상 관리

장마가 끝나고 고온건조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잎에서의 증산량은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지만 뿌리 활성 기능이 떨어져 양분 흡수가 저하된다. 이에 수체로의 충분한 수분공급이 어려워 잎온도 상승 대비 갑작스러운 탈수로 인해 잎이 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잎타기를 방지하려면 우선 심는 거리에 맞는 가지고르기, 가지치기 작업과 결가지 및 열매가지 배치로 수관 내부까지 햇빛이 투과되도록 한다. 또한 옷자람 가지 위주로 가지치기를 하여 수관 내부까지 바람이 잘 통하도록 관리한다. 이밖에 지나친 가리비료 시용은 결핍을 초래하는 잎타기의 한 원인이 되며 질소의 과다 시용도 갈색무늬병 발생을 촉진하므로 균형적인 비료 주기를 해야 한다.

장마 등으로 쓰러진 나무와 떨어진 잎 피해를 입은 나무 관리

땅이 마르기 전에 나무를 세워 고정해 주고 뿌리 주변에 흙을 채운 후 베어낸 풀로 덮어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부러진 가지는 절단면이 최소화되도록 자른 후 보호제를 발라주고, 상처 부위로 2차 병원균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살균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다.

떨어진 과실은 그대로 두지 않고 모아 묻거나 치우며, 갈색껍질병에 걸린 가지는 즉시 제거하여 태워야 한다. 잎이 많이 손상된 나무는 나무자람새 회복을 위해 요소(0.3%)나, 제4종 복합비료 등을 잎에 뿌려준다.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 준비 사항

과일 수확기인 9월은 우리나라에 강한 태풍이 접근하는 시기이므로 과수원의 나무가 쓰러지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미리 지주대를 설치하고 유인물로 나무를 고정해야 한다. 매년 태풍이나 폭우에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과수원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그물눈 4mm의 망사로 파풍망을 설치하면 좋다. 또한 기온이 높고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병해충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과종별 주요 병해충 발생 양상을 파악하고 초기에 적용 약제를 살포해야 과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잎과 과일을 숙아주어 정상과 비대 돕기

봉지를 씌워 재배한 과일은 보통 수확하기 30~40일 전 봉지를 벗긴다. 봉지를 벗기는 시기가 너무 빠를 경우 엽록소가 생성되어 착색이 불량해질 수 있다. 착색을 촉진하기 위해 과일을 가리는 잎은 제거한다. 그러나 한 번에 많은 양의 잎을 제거하면 과



일 발육과 당도에 나쁜 영향을 주므로 몇 차례에 나누어 잎을 따야 한다.

사과 잎따기는 과일 표면의 착색이 30% 정도 된 시기부터 시작하는데, 1차 잎따기는 수확 30~40일 전에 과일에 밀착되어 있는 과충엽을 따주고, 착색이 진전됨에 따라 2~3회에 걸쳐 과일을 가리는 잎 위주로 따준다. 잎따기는 수확 10일 전까지 마무리한다.

굴나무는 나무 하나에 너무 많은 굴이 달리면 과일의 크기가 고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늘 속에 묻혀 있는 굴, 병해충에 걸린 굴, 상처난 굴, 크기가 다른 것에 비해 너무 작거나 큰 굴, 위쪽을 바라보는 비정상과는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솎아주는 것이 좋다.

숙기를 판단하여 여러 차례 나누어 수확

같은 품종의 과일도 동일한 과원 내에서는 영양상태와 위치에 따라 익는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충분히 익은 과일부터 먼저 수확하여 출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확한 수확시기 판정이 필요한 과일의 경우 숙기 판정용 컬러 차트와 색도계를 이용하면 좋다.

사과의 수확시기 결정은 출하시기, 저장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저장용은 즉시 출하용보

다 일찍 수확한다. 재배지역과 만개 후 일수 및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며 최종적으로는 전분지수를 이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단감의 수확은 품종 고유의 색깔로 착색되어 당도가 충분한 완숙된 것부터 3~4회로 나누어 10월 중순에서 11월 상순까지 수확한다. 단감 중에서도 국내 재배면적이 많은 부유는 감의 적도 부위가 색도계 4이상일 때 수확하는 것이 알맞다.

그리고 배 신고는 만개 후 약 160일이 지난 다음 크기가 큰 것부터 3~5일 간격으로 2~3차례 나누어 수확하는데, 장기 저온 저장용은 색도 5, 단기 저온 저장 및 CA 저장용은 색도 6, 즉시 판매용은 색도 7 이상일 때 수확하면 된다.

가을거름을 주어 잎과 뿌리 기능 증진

수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거나 거의 끝난 과수원은 다음해 재배를 위해 가을거름 시용여부를 고려한다. 가을거름은 수확 후 부족되는 성분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시용하며 사과와 배의 경우 질소비료 위주로 시용한다. 사과는 봄철 저온으로 착과량이 적어 웃자란 가지가 많거나 수세가 강한 경우는 가을거름 주기를 생략한다. 수세가 약한 나무 위주로 시용하는데 시용량은 질소 6kg/10a 정도 준다. 수세가 매우 약해 겨울철 동해가 우려되는 과원에서는 5% 농도로 요소 엽면시비를 한다. 특히 배 과수원은 다 자란 나무를 기준으로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 사이(과실 수확 직후)에 가을거름을 10a당 요소 9.3kg 주어야 한다. 하지만 배나무 잎 색이 진하거나 새 가지 발육이 늦게까지 계속되는 과수원에는 거름 주는 시기를 늦추고 시용량을 줄인다.

감의 경우 부유는 수확 30일 전인 10월 상·중순에 가을거름을 주어 잎의 기능을 높이고 과일 비대를 도와주는 것이 좋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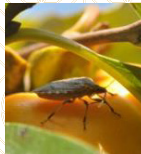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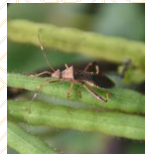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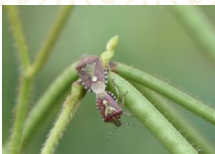


초가을 무르익기 전, 더 조심해야 할 과수 병해충

	피해와 진단	형 태
과수 공통 미국선녀벌레 매미목 선녀벌레과 <i>Metcalfa pruinosa</i>	• 어린벌레와 어른벌레가 신초에서 양분을 흡즙, 심하면 낙엽 • 흰색의 밀납 물질이 바람에 날리며 조경수의 외관 손상 • 배설물 분비에 의한 그을음병 유발, 광합성 저해, 상품성 하락	• 알 : 크기 1mm, 방추형이며 유백색 • 어린벌레 : 8mm, 연녹색이지만 백색 밀납물질로 덮여 있음 • 어른벌레 : 10mm, 앞날개는 연한 흑색으로 부정형의 검정색 반점이 있으며, 항상 날개를 접고 있음
과수·두류 공통 툽다리개미허리노린재 노린재목 허리노린재과 <i>Riptortus clavatus</i>	• 어린벌레와 어른벌레가 어린 과일 가해, 조기 낙과 유발 • 9월 중순 이후 열매에 침을 바고 흡즙하여 표면이 함몰 • 피해 부위는 스펀지처럼 무석무석해져 상품성을 하락시킴 • 두류는 열매가 제대로 여물지 못해 쪽정이가 됨	• 어른벌레 : 크기 1.5cm. 허리가 좁고 세 번째 다리가 발달, 다리부위에 톱니모양의 가시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 • 수컷은 머리와 가슴 측면에 검은 선, 황색의 불연속 무늬가 뚜렷하지만 암컷은 불명확 • 어린벌레 : 형태나 행동습성이 개미와 매우 유사
감 둥근무늬낙엽병 곰팡이병 <i>Mycosphaerella nawae</i>	• 잎에 흑색의 둥근반점 형성 → 병반이 확대 되면서 내부는 담갈색 내지 적갈색을 띠고, 병반의 테두리는 흑자색임 • 발병이 심할 경우 조기낙엽 및 낙과로 수확 불가능	

50일이 넘는 오랜 장마로 인해 과수농가가 시름에 잠겼다. 여기에 더해 과수농가에 해가되는 병충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 가을 특히나 주의해야 할 과수 병충해 방제에 더욱 신경써야 할 때이다. 과수 병충해에 대한 피해와 방제법을 소개한다.

출처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발생생태	방 제	피해사례
- 연 1세대 발생, 알로 월동하여 5월 상·중순경에 부화 - 흰색의 밀납 물질이 바람에 날리며 조경수의 외관 손상 - 배설물 분비에 의한 그을음병 유발, 광합성 저해, 상품성 하락	- 월동 알의 부화가 완료되는 6월 상순경에 적용약제 살포 - 어린벌레와 어른벌레가 과수원으로 유입되는 초기에 약제 살포	 어린벌레  어른벌레  어린벌레 분비 밀납물질  어른벌레 집단서식
- 주요 노린재류 :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썩덩나무노린재, 갈색날개노린재, 알락수염노린재, 풀색노린재 등 - 연 2~3회 발생, 포장 잔재물이나 포장 주위의 잡초 등에서 어른 벌레로 월동, 1세대 어른벌레는 6월 하순~7월 하순에 발생, 2세대 어른벌레는 8월 상순~9월 중순에 발생	- 페로몬트랩으로 예찰 가능, 약제 살포시 날아가 방제 곤란 - 페로몬트랩은 포장과 3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 과수원이나 콩밭 내부에는 설치 금지 → 오히려 피해 증가	 피해 단감  썩덩나무노린재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알락수염노린재  풀색노린재
- 병든 잎이나 과일에서 균사 또는 자낭각의 형태로 월동 후 자낭포자가 날아가 전염원이 됨 - 감염시기는 5월 중순부터 6월 하순, 잠복기가 60~120일 정도이므로 9월 상순부터 10월 상순에 발병	1차 전염원인 병든 잎을 철저히 제거 - 수세가 약하면 발병이 심하므로 적절한 비배관리를 잘하여 수세와 지력을 좋게 관리 - 비온 후 자낭포자가 많이 날려 주기적으로 약제방제 - 약제방제 시기는 5월 중순부터 7월 상순까지 10일 간격, 잎 뒷면에 약이 충분히 묻도록 강우 후에 살포 - 신초정지기인 6월 하순 이후 액상유황 250~300배액을 살포	 원형 반점  조기낙엽  검은 반점  가지 함몰

전남농업기술원 농업인 교육일정

11

월
교육일정

NOV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GAP 인증 굴삭기, 지게차, 스kid로더반	6	7
8	9 농식품 가공(절임류·소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	10	11	12 제3기 무인 자율주행(트랙터, 이앙기)반	13	14
15	16 농촌융복합 전문가 양성	17	18	19	20	21
22	23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실기반 농산물 온라인 유통 마케팅	24	25	26 과수 정지전정	27	28
29	30					



※ 교육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교육일정은 홈페이지(www.jares.go.kr)를 참고하세요.

교육신청 교육시작 한 달 전 시군농업기술센터로 신청

교육문의 전문기술 061-330-2724, 귀농귀촌정보화 061-330-2736, 농업기계 061-330-2732

GAP 인증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교육기간	11. 5.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교육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김양진(061-330-2724)

굴삭기, 지게차, 스kid로더반

교육대상	도내 희망 농업인
교육기간	11. 5. ~ 11. 6.(합숙)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기계 교육관
교육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이기용(061-330-2732)
교육내용	영농현장 안전한 중장비(지게차, 굴삭기, 스kid로더) 운영과 작업실습을 통한 농업인 영농경영비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현장교육 등

농식품 가공(절임류·소스)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교육기간	11. 9. ~ 11.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교육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김양진(061-330-2724)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

교육대상	도내에 주소를 둔 희망농업인
교육기간	11. 10. ~ 12.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
교육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박성국(061-330-2736)

제3기 무인 자율주행(트랙터, 이앙기)반

교육대상	도내 희망 농업인
교육기간	11. 12. ~ 11. 13.(합숙)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기계 교육관
교육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이기용(061-330-2732)
교육내용	- 친환경 유기농업 방향 - 무인 자율주행 기초이론 및 무인 트랙터, 승용이앙기 자율주행 프로그램 설정, 농작업 현장실습 교육 등

농촌융복합 전문가 양성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교육기간	11. 16. ~ 18.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교육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김양진(061-330-2724)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실기반

교육대상	도내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1차 필기 합격 농업인
교육기간	11. 23. ~ 11. 27.(합숙)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기계 교육관
교육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이기용(061-330-2732)
교육내용	- 농업기계 기초이론 및 영농현장 농작업기 운영 중 안전사고 예방 현장교육 등 -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실기 시험 대비 트랙터, 수확/포장기계 등 측정기를 이용한 현장실습

농산물 온라인 유통 마케팅

교육대상	도내에 주소를 둔 희망농업인
교육기간	11. 24. ~ 26.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
교육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박성국(061-330-2736)

과수 정지전정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교육기간	11. 26. ~ 27.
교육장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교육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김양진(061-330-2724)

JARES NEWS



전남농업기술원, 청년4-H 과제경진 시상식 성황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0 전라남도 청년4-H 과제경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제경진은 7월 30일, 21개 시군 61명이 참가한 가운데 1·2·3차 다양한 청년농업인 산업 형태에 맞춰 농산업 아이디어 등 5종목에 걸쳐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진 결과 종합우승은 곡성군·장성군이 공동 수상했으며 종목별 우수회원으로 선발된 10명은 '청년4-H 우수과제 창업 농 육성사업' 대상자로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갈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각 3,0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문의 농촌지원과 정현철 지도사(061-330-2742)



전남농업기술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캠페인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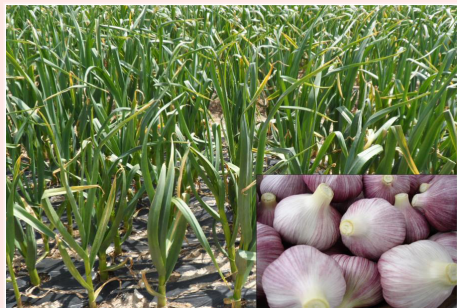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핸드 인 핸드 캠페인'에 참여한다.

핸드 인 핸드 캠페인은 코로나19로 판매량이 줄어든 사회적 경제기업의 상품을 구매하자는 취지로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다른 참가자에게 전달하며 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자는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오병석 원장 및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영준 센터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하게 됐고, 다음 주자로 광주광역시 조인철 부시장, 한전 KDN 이오석 상임감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김덕호 원장을 지명하였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비롯한 많은 전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캠페인 참여로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의 농촌지원과 강상구 지도사(061-330-2753)



전남도 육성 신품종 ‘단영’마늘 명품화 추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전남 토종마늘을 모본으로 자체 육종한 ‘단영’ 품종의 브랜드 이미지(BI) 개발을 통해 명품화에 나선다.

‘단영’마늘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계통선발과 생산력 및 특성검정을 거쳐 2015년 품종보호 출원한 신품종 마늘이다.

토종마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영’마늘은 품질이 우수하고 유리당과 유기산이 많아 맛이 순하며 당도가 높다. 특히 주요 기능성분 중 하나인 알리신 화합물은 일반 마늘보다 17%, 비타민 B1과 B2는 30% 이상 다량 함유돼 인기가 높다.

이처럼 우수한 영양성분을 가진 ‘단영’마늘은 평소 마늘을 즐겨먹는 우리 국민의 입맛에 적합한 품종으로 지난해 농촌진흥청 주관 소비자패널 시장테스트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인바 있다.

현재 ‘단영’ 품종은 전남지역 마늘 주산지(7개 지역)를 중심으로 시범재배 중이며, 농가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 전국으로 확대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단영’마늘 홍보 관련 물품(캐릭터 인형, 포장박스 등) 제작과 명품 전남토종 마늘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명품화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기술보급과 이승진 연구사(061-330-2784)



전남도, 침수 피해지역 ‘딸기묘 공급’ 대책 추진

전라남도의 딸기 주산지인 담양, 곡성지역에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로 딸기 자가 육묘하우스의 침수로 9월에 정식해야 할 딸기 묘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딸기묘 공급이 차질 없도록 하였다.

전라남도는 농촌진흥청과 담양군, 곡성군 합동으로 딸기묘 수급을 조사한 결과 1,700만 주 가량 공급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고, 전국의 육묘장과 농가에서 육묘중인 잉여묘 850만 주를 수해지역에 우선 공급하여 묘 부족 대책을 마련하였고, 심는 거리 조정과 자가묘 안정 생산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전남에서 육성한 신품종의 수출과 우량묘 보급을 위해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6억 원을 투입하여 딸기 전용육묘 시설 2ha를 설치하고 딸기묘 생산을 자급하여 전남 명품 딸기 재배 단지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기술보급과 변규환 지도사(061-330-2783)

JARES NEWS



전남농업기술원, 장마 후 벼 병해충 방제 철저 당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긴 장마로 벼 병해충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주요 병해충에 대한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최근 잦은 강우와 높은 습도로 병 발생에 유리한 환경이 지속되어 도내 도열병은 전년대비 135%로 심하게 발생하고 있고, 잎집무늬마름병도 18.9%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기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등의 추가 발병 확산이 예상된다. 특히 흰잎마름병은 한번 발생하면 방제가 어려우므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서는 예방 위주로 약제방제가 필요하고, 침수된 논은 병원균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벼의 주요 해충인 흑명나방은 성충밀도가 전년보다 높아 많은 피해가 예상되며, 현재까지 벼멸구와 흰등멸구의 발생밀도는 전년과 비슷하나, 장마 이후 비래량이 많아지고 8~9월 고온에 따른 대량번식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방제가 필요하다.

문의 친환경농업연구소 김효정 연구사(061-330-2508)



전남농업기술원, 여름철 가축 고온 스트레스 '효율적 관리'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축산농가들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폭염 가축 관리 요령'을 마련해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축은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데 요즘처럼 30℃ 이상 폭염이 지속될 경우 체내 열 방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가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고온 스트레스로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면 체중감소, 유량감소, 번식능력저하, 폐사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은 고온에 의한 피해는 시원한 환경 조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축사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한우·젖소 축사 관리는 지붕에 물을 뿌려주고 운동장에 그늘막 설치, 축사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고 송풍팬 가동, 물통을 자주 청소해주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급여, 사료는 급여횟수를 늘려주고 양질의 풀 사료 급여,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 급여하고 소금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비치, 갑작스러운 호우에 대비해 축사 주변, 운동장, 사료포 등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돈사 관리는 돈사에 송풍기, 안개분무 장치 설치, 지붕에 물 뿌려주기, 단열재 설치, 사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1주일 분 정도 구입, 사육밀도 적정 유지(1두/㎡), 매일 사료통 청소를 해줘야 한다.

또한 닭·오리 축사 관리는 축사 등에 스티로폼 등을 부착하여 온도 상승 방지, 무더운 한낮에는 지붕 위에 물을 뿌려 복사열 유입방지, 환기는 자연환기보다는 환풍기 등으로 강제 통풍, 적정 사육밀도 유지와 신선한 물을 공급, 폭염시간 축사 출입 제한 등이다.

문의 축산연구소 최영선 연구사(061-430-4260)



전라남도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수해복구 ‘구슬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에 전라남도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이 긴급히 투입되어 수해복구작업 및 식사제공 봉사활동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수해복구 첫날인 9일은 한국생활개선전라남도연합회 주옥선 회장은 폭우와 침수로 식당이 운영되지 않아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를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만사를 제쳐두고 손수 따뜻한 밥과 찌개를 끓여 곡성침수지역을 방문 수해 복구중인 자원봉사자 5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10일부터 11일에는 구례 곡성 담양 등 전남 침수지역에 본격적으로 복구작업을 시작하여 각 지역 시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등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과 관내 유관단체가 협력하여 피해지역에 200여 명의 회원들이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한국농촌지도자전라남도연합회와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등 지역농촌지도자회원들은 피해가 심한 구례군과 곡성군 수해 지역을 방문 의용소방대 적십자사와 함께 복구작업에 앞장섰다.

정수관 농촌지도자 전라남도연합회장은 회원들과 집안 토사제거 가재도구세척, 시설하우스 농작물 제거와 논, 밭 배수로 정비에 긴급 복구활동을 펼치면서 향후에도 계속 인적지원과 성금을 수해지역에 기탁하겠다고 했다.

문의 농촌지원과 이민규 지도사(061-330-2763)



전남농업기술원, 침수지역 농업기계 무상수리 지원 나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5개 읍·면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찾아가는 현장 농기계 무상수리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구례군의 농업기계 대리점 및 수리업체 등도 침수피해를 입어 농업기계 수리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주관으로 농기계 관련 업체와 피해가 덜한 시군농업기술센터가 합동으로 수리지원반을 편성하여 직접 마을로 찾아가 농기계 수리 지원을 추진했다.

참여업체는 국제농업기계, 희망농업기계, 성원산업 3개 업체이며, 참여시군은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등 9개 시군이다.

마을마다 침수된 농기계의 연료여과기에 들어간 이물질 제거 및 전기배선을 점검한 후 시동을 걸고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등 꼼꼼한 정비·수리를 실시했다.

문의 농업교육과 박성국 지도사(061-330-2731)

전남도 소식

전남도, '농축산물 호우피해 지원' 총력

전라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피해는 농작물의 경우 벼 6천 813ha, 밭작물 360ha, 시설작물 432ha, 과수 303ha 등 총 7,959ha가 침수돼 700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축산에서도 220농가의 축사가 침수돼 44만 6,000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6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저수지 제방, 양배수장 등 기반시설 역시 235개소가 유실되거나 침수됐다.

전라남도는 공무원과 군부대, 자원봉사자 등 6,100여 명을 피해지역에 투입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서 복구 작업을 펴고 있다.

농작물이 침수된 지역은 퇴수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낙과 역시 100% 수거했다. 이밖에 시설하우스 정리, 매몰유실된 곳 토사 걷어내기 등 작업을 신속하게 펼치고 있다. 또한 침수와 장기간 지속된 장마로 벼 도열병, 고추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이 우려된 농작물에 대한 긴급방제도 힘쓰고 있다. 폐사한 가축은 고온 멸균 처리 등을 통해 100% 안전하게 처리했으며, 축산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포크레인, 트랙터 등 장비 135대와 공수의, 수의사 등 인력 1,240명을 투입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 공동방제단 11개단을 꾸려 소독 등 질병관리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 가축의 조기 출하를 위한 도축지원에도 나섰다. 침수 피해를 입은 곡성, 구례지역 한우농가의 생축 사육관리와 조기 회복을 위해 축사 바닥용 깔짚과 조사료(곤포사일리지) 612톤을 긴급 공급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8월 말까지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와 농업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농기계 침수 피해를 입은 담양곡성구례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9월 11일까지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펼칠 계획이다.

문의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20)

전남도 소식

전남도, ‘국제농업박람회’ 5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가치를 선보일 국내 최대 농업분야 종합박람회인 ‘2021국제농업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첫 국제행사로 개최된 지난 2012년 이후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은 것이다. 국제박람회 최초로 5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농업과 농촌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종합박람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특히, 2021년 박람회는 그동안 4회 연속 국고지원을 받은 국제행사로 일몰제로 인해 국비지원 중단 위기에 있었으나, ‘2021 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을 기초로 박람회 목적과 국제행사라는 의미에 부합되도록 꼼꼼히 준비해 지난해 12월 일몰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를 수차례 방문해 농업의 미래가치와 농업·농촌의 활로 모색을 위한 행사의 당위성을 설득한 결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최종 승인돼 국비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정부의 승인은 지난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관측수입 2,366억 원, 생산유발 6,484억 원, 취업유발인원 6,819명에 달한 경제성과 생산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지난 20여 년간 국내외의 우수한 농산물과 농업기술을 선보인 농업박람회를 20여 년간 개최한 역사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문의 전라남도 농업박람회(061-339-9202)

방방곡곡 떠나볼까? 남도 축제로 놀러오세요!

9월

- 9. 11 ~ 9. 13 전남도/해남/진도 2020 명량대첩축제
- 9. 18 ~ 9. 27 영광 불갑산상사화축제
- 9. 19 ~ 9. 20 함평 2020 꽃무릇큰잔치
- 9. 20 ~ 9. 22 강진 제11회 마량미향 찰전어축제
- 9월 중 곡성 석곡코스모스음악회
- 9월 중 광양 광양전어축제
- 9월 중 구례 2019 화엄음악제
- 9월 중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
- 9월 중 여수 여자만갯벌노을축제
- 9월 중 영암 영암무화과축제
- 9월 중 장성 축령산편백산소축제
- 9월 중 장흥 장평귀족호도축제
- 9 ~ 10월 중 장흥 회령포 문화축제

10월

- 10. 3 ~ 10. 4 여수 2020 여수동동북축제
- 10. 3 ~ 10. 4 영광 영광백수해안도로 노을축제
- 10. 8 ~ 10. 11 곡성 곡성심청축제
- 10. 8 ~ 10. 13 강진 제48회 강진청자축제
- 10. 16 ~ 10. 25 순천 2020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 10. 23 ~ 11. 1 함평 2020 대한민국 국향대전
- 10. 23 ~ 11. 1 제5회 강진만춤추는 갈대축제
- 10. 30 ~ 11. 1 2020 제22회 순천만갈대제
- 10월 중 나주 대한민국 마한문화제
- 10월 중 담양 창평전통음식축제
- 10월 중 구례 구례동편소리축제
- 10월 중 화순 화순 적벽 문화축제
- 10월 중 장흥 장흥표고버섯축제
- 10월 중 영암 마한축제
- 10월 중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 10월 중 완도 2020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 10월 중 진도 2020 진도문화예술제
- 10월 중 신안 새우젓축제

※ 축제 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이나 기상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전남도청 관광과 061. 286. 5261



전남 청년농부의 정직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만나보세요!

전남농업의 미래가 숨 쉬는 곳, 지오콥



황영감농원

태추단감, 부유단감, 대봉
<https://teachu.modoo.at/?link=k8fny0qk>



메밀꽃유채향

유채유가공, 메밀, 메밀가루
<https://smartstore.naver.com/jindomemil>



자람푸드

양배추즙, 도라지배추, 양파즙, 사과비트즙 등
<https://smartstore.naver.com/zaramfood>



황금씨앗

잼, 라이스칩, 과이건조, 분말 등 식품가공제조
<https://smartstore.naver.com/make5ne>



강진푸드팜

단호박, 단호박가루, 고추, 장류 등 농산물가공유통
<https://smartstore.naver.com/gjfoodfarm>



여비농장

쌀, 흑미, 잡곡 등
<https://smartstore.naver.com/choefood/products/3985876998>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지원경영과,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우)58213 TEL. 061. 330. 2597